[UCI]I804:24011-200000239438

2010년 2월
교육학석사(유아교육) 학위논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나 현 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Mother's Types of Language Control and Rearing Attitudes on Young Children's Social Ability

2010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나 현 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 주 성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유아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나 현 미

나현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2009년 11월 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차　　례

ABSTRACT

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 문제 ····· 6

C. 연구의 한계점 ····· 7

D. 용어의 정의 ····· 8

Ⅱ. 이론적 배경

A.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양육태도 ·····11

B. 유아의 사회적 능력 ····· 26

C.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31

D.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33

Ⅲ. 연구방법

A. 연구 대상 ····· 35

B. 연구 도구 ····· 37

C. 연구기간 및 절차 ····· 53

D. 자료 분석 ·····53

Ⅳ. 연구 결과

A.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언어통제 유형과 양육태도와의 차이·····54

B.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와의 차이····· 61

C.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 …… 63
D.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 …… 64
E.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관계 …… 65

Ⅴ. 결론 및 제언

A. 결 론 …… 70
B. 제 언 …… 76

참고문헌 …… 79
〈부 록〉

표 차 례

〈표 Ⅱ-1〉 언어통제유형과 언어자료의 예 ····· 13
〈표 Ⅲ-1〉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 35
〈표 Ⅲ-2〉유아의 일반적 특성 ····· 36
〈표 Ⅲ-3〉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의 문항 분석 현황 ·····37
〈표 Ⅲ-4〉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의 하위 요인 및 신뢰도 ····· 39
〈표 Ⅲ-5〉어머니 양육태도 척도의 문항구성 ·····44
〈표 Ⅲ-6〉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의 하위 요인 및 신뢰도 ····· 45
〈표 Ⅲ-7〉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각 요인별 문항구성 ····· 50
〈표 Ⅲ-8〉유아 사회적 능력의 하위 요인 및 신뢰도 ····· 51
〈표 Ⅳ-1〉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언어통제유형····· 56
〈표 Ⅳ-2〉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언어통제유형····· 57
〈표 Ⅳ-3〉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언어통제유형····· 58
〈표 Ⅳ-4〉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 ····· 60
〈표 Ⅳ-5〉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 ····· 61
〈표 Ⅳ-6〉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태도····· 62
〈표 Ⅳ-7〉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 63
〈표 Ⅳ-8〉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 64
〈표 Ⅳ-9〉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 ····· 66
〈표 Ⅳ-10〉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 67
〈표 Ⅳ-11〉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관계 ····· 70

그 림 차 례

〔그림 Ⅱ-1〕 Symonds의 양육태도 모형 ····· 19
〔그림 Ⅱ-2〕 Schaefer(1959)의 양육태도 모형 ····· 20

ABSTRACT

Effects of Mother's Types of Language Control and Rearing Attitudes on Young Children's Social Ability

Na, Hyun Mi
Advised by Prof. Joosung Park, Ph. D.
Major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and rearing attitude between Jeju Island and Honam area.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three- to five-year-olds 408 young children of Jeju Island and Honam area and 316 of their mother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Two research tools were used for the study. In order to measure maternal rearing attitude Schaefer's(1959)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 revised by Lee(1997) was used, to measure socio-emotional development level the assessment tool revised by Jang(1987) was used.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it turned out that the maternal employment did not affect on mother's rearing attitude except controlling attitude(t=2.711, p<.01).

Second, gender effect of young children on socio-emotional developmen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institutional stability: Internal control(t=4.3, p<.001), peer interaction(t=2.298, p<.05), achievement motivation(t=-3.612, p<.001), curiosity(t=-2.291, p<.05).

Third, some of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rearing attitude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were found.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인성형성의 바탕이 되는 환경은 가정이며, 다른 어느 환경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도 가정이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신체보호와 양육수단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하여 새로운 구성원을 배출해 내는 책임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가정에서의 최초의 교사는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의 기본 구성원은 어머니이며,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정에서의 어머니는 특히 유아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올바른 인격형성의 모델이 된다. 양육태도란 부모나 양육자가 어린이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양식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유아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발달해 나가고, 어머니는 자녀 양육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지적, 정의적 특성을 유아에게 심어주게 된다.

Bernstein(1961)은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하면서, 유아의 언어능력이 가정 내에서의 생활 중 어떠한 언어유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 사회계층별로 전형적이고 지배적인 언어적

표현양식을 가지게 되고 이로써 각 계층 아동들의 언어수준이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Bloom(1964)은 이와 같은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능력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고, 이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을 언어라고 주장하였다(김영주, 1999 재인용).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제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Becker, 1964 ; Rohner, 1980 : Saavedra, 1980 ; Schaefer, 1965) 특히 부모의 성격이나 가치관, 생활태도 등이 자녀의 양육태도에 반영되어 유아의 언어와 사고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Bernstein, 1971) 즉, 부모의 양육태도 등은 비언어적 요인인 자녀교육관, 가족구성형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수준, 부모의 양육태도 등으로서 간접적 요인이며 어머니의 통제유형과 같은 언어적 요인은 직접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Freud(1953)는 요람에서의 경험이 잠재 의식화되어 후일 행동을 좌우하는 원동력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초기 경험이 인간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으로 유아의 인성은 주로 어렸을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빚어진다고 하였다(박미옥,1993).

Becker(1964)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지적·정의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유아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라 하였다(장혜정, 2003재인용).

김재은(1974)은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말하며, 부모의 관찰 가능한 행동과 자녀의 인식에 대한 반응 형태로 표명되어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Fishbein과 Ajzen(1975)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행동에 대한 경향과 반응양식이라고 정의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라고 정의하였으며, Clusen은 아동이 때맞추어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육태도를 아동의 성장과 발달 즉, 심리적·물리적 도움을 적절히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이 활동은 주로 부모와 아동간의 자연스러운 모든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이동희, 1995).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방식은 감정을 많이 억압받게 되는 자녀는 사회생활에서 욕구불만, 갈등, 소외감, 반항경향, 고독감 등의 여러 가지 부적응 현상 등이 나타나고, 반면 가족내의 상호작용이 개인 지향적일수록 유아의 언어발달 혹은 역할조망능력의 발달이 촉진되었다고 한다. (Thorlindsson, 1981)

이원영(1983)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질서있는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아들의 주어진 한계 내에서 그 자유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인간적인 견지에서 민주주의적인 태도로 양육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이경래, 1997). 즉, 부모 자신이 자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건전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점차 부모의 양육태도에 변화가 있었다(이원영,1983).

한편 한종혜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외현적 태도 및 행동을 양육태도라 정의 하면서 양육태도는 아동의 인성과 행동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어떠한 태도로 키웠는가 하는 양육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이러한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부모의 표현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공병진은 자녀에 대한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행위 모두를 양육태도라고 정의 하였고, 김병임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언행, 표정, 마

음, 쓰임 등 포괄적인 부모의 행동을 양육태도라고 정의 하였다.

이숙은 부모의 양육태도에는 그 가족이 속한 사회의 가치관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황혜자와 최윤화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부모 또는 양육자의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으로서 자녀에 의해서 지각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양식이 양육태도라고 하였다.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대하는 일반적, 보편적인 태도로서 자녀에 의하여 지각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수준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가정환경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가정에서의 어머니는 유아가 처음으로 접하는 교사가 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자율성을 더 많이 주며, 협동적이고 유아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통제적이고 권위적이며 지시적이라는 보고(Schaefer, 1959)는 많은 연구자 등의 지지를 받았으며 문성희(1982)의 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socialcompetence)에 대한 개념은 유아의 사회적 특성의 포괄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가치를 반영하는 특수성을 지니는 개념으로 문화권이나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또는 접근방법에 따라 개념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사회적 능력의 개념을 정리하면, 첫째, 동물행동학적 접근방법으로 사회적 능력을 환경에 적합한 행동을 나타내는 적응과정으로서 Zigler와 Trikett(1978)은 사회적 능력을 적절한 형식적인 개념을 습득하는 능력, 학교생활을 잘 수행하는 능력, 성인이나 다른 아동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능력 등으로서 개인이 환경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White,Kaban& Attanucci(1979)는 사회적

능력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질적, 정서적인 자원을 얻어서 원활하게 사회로 이입해가는 능력으로 설명하였고, Krasnor& Rubin(1983)은 사회적 문제해결을 대인관계에서 도움을 얻고 대화를 주도하는 행위로 보았다(최경순, 1992재인용). 둘째, 인성구조론적 관점에서는 다양한 구성인자로 이루어진 인성구조 중에서 긍정적인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특성들을 사회적 능력으로 보는 것이다. Kohn과 Roseman(1972)은 사회적 능력 검사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두 종류로 분류하면서 생후 3년 동안에 어머니와 유아 사이의 상호관계를 반영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사회적 능력이 있는 유아는 관심과 호기심이 많고 교사의 제안에 따르는 한도 내에서 주장하며,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유아는 위축되어 있고 관심이 부족하며, 비협조적이고 학급 내에서 문제를 자주 일으킨다고 했다. 셋째, 동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White(1959)는 사회적 능력을 파악, 탐구, 기는 것, 걷는 것, 관심을 갖는 것, 지각, 언어, 사고 등 본능적인 동기를 가진 것들로서 인간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넷째, 사회적 상호작용입장으로 사회적 능력을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으로서 타인과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행동 목록의 소유, 상황에 적절하게 효율적인 기술을 나타나게 해주는 개인 내적 자원의 소유가 포함된다고 하였다(Weinstein, 1969;송인우, 2001재인용).

한편 Asher(1983)는 사회적 능력의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관련성(relevance)의 차원이다. 이는 또래와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래집단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유아는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과정의 분석을 거쳐서 자신의 행동을 계속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적응시켜 가는 것을 말한다. 둘째, 반응성(responsiveness)의 차원이다. 타인의

개입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셋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가 발전해 가고 관계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어 간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인 과정관점(processview)차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개념에는 사회적 인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네 가지의 관점은 접근방법에 따라 그 개념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응능력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속한 사회구조 내에서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유아의 성장단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능력에 촛점을 맞추어 연구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를 파악하고,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비교·분석하여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리하여 도출된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태도, 언어유형과 유아의 발달 특성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유아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보다 바람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B. 연구 문제

본 논문에서는 어머니와 자녀간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관련시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또한 유아의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해 봄으로써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아동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자녀지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1-1.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1-2.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가 지각한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양육태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양육태도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

C.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실시함에 있어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대표되는 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G시와 D군의 각 2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 4, 5, 6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부모에게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응답을 직접 면접이나 관찰이 아닌 질문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언어통제 유형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연구대상의 표본집단이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하류계층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계층에 의한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D.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능력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능력으로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하위개념으로 유능성·지도력·불안정성·부모에 대한 애정·방해성이 있다.

2. 유능성(capability)

유능성이란 서로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관계 내에서 적

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다(박주희, 이은해, 2001). 유능성이 높은 유아는 사교적이며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서로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므로 바람직한 사회성 발달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감, 문제해결의 능력, 경청하고 행동하는 능력, 적극성, 창의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3. 지도력(leadership)

적합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또래나 어른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하며 안내나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쉽, 판단력, 주관력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4. 불안정성(apprehension)

낯선 상황에서 쉽게 당황해하거나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 예민한 것을 말하며, 본 논문에서는 다른 아이와 놀이를 하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금방 울거나 당황해 하는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5. 부모에 대한 애정(affection toward parents)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정표현과 부모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부모와 자주 의논도 하고 위로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6. 방해성(disruption)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참견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들과 놀 때 자신 혼자 무엇이든지 독단적으로 고집스럽게 마음대로 하는 행위나 자신의 말을듣지 않는 아이와는 놀지 않으며 남이 칭찬을 받으면 심술을 부리는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A.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

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부모는 자녀의 모델의 역할을 담당하며 가정에서 자녀의 훈련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심중의 하나는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다. 의사소통의 방법으로는 주로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적절한 언어적 상호작용은 자녀의 성격형성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머니들은 가치관과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제한하거나 변화시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언어통제 유형을 가진다.

Bernstein(1961)은 자녀 양육시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는 사회구조를 반영하고 아동의 사고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처음 강조한 바 있으며, 또한 유아가 언어를 매개로 사회적 상황을 규제하고 사회적, 지적, 정의적 특성에 대한 방향감을 설정함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언어통제 행동은 자녀의 사회적 지각과 범주를 결정한다는 두 가지 사회 언어학적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사회화에 관한 여러 관점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두 가지 언어모형(linguistic mode)은 정교한 어법(elaborated code)과 제한된 어법

(restricted code)으로 그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어머니가 정교한 어법을 쓰는 가정은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가 비교적 안정되고 유아의 주체적 역할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경향을 보였으며 유아에게 합리적인 설명과 논리성이 강조된 높은 수준의 개념을 전달하고 융통성 있고 제안적이고 풍부한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유아는 사회에서의 당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비교적 신중하며, 인과관계를 고려할 줄 알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제한된 어법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에게 비합리적인 설명과 낮은 수준의 개념을 가르치며 제한되고 단정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또한 사회, 경제적인 지위와의 관련성에서도 제한된 어법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언어는 낮은 가정에서 비교적 개인이 선택하고 조합할 문장의 요소가 제한되어 있어 그들 유아의 언어와 사회성 발달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집단 내의 독특한 언어형태는 한 가정 내에서의 통제유형에 반영되어 지위적 통제 유형과 개인적인 통제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지위적인 통제유형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모든 인간관계가 각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입각한 제한된 언어를 사용하며 개인의 행동이 역할기대에 의해 통제된다고 하였다. 개인적인 통제유형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상호작용을 할 때 개인적 감정이나 독특한 반응이 허용되고 판단에 입각한 행동이 정당화 된다.

Vygotsky(1962)는 사고 발달은 언어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특별히 유아의 지적 발달의 과정은 부모와 자녀간의 발화(speech)나 몸짓(gesture)을 통한 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 또한 부모의 역할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는지 등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어머니의 언어는 유아의 정신적 과정(mental process)

의 형성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Bernstein(1961)에 의해 어머니의 자녀 양육 시 사용되는 언어의 중요성이 처음으로 강조되었다. Hess와 Shimpman(1965)도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유형과 유아의 인지적인 기능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어머니가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가가 유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어머니는 유아와 대화하는 방법과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하였다. Olim(1970)은 사회적·교육적 결손으로 이어지는 행동은 유아의 초기에 형성되어지는바, 주로 언어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보았다.

Schaefer(1977)는 유아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언어형태를 어머니는 갖추고 있어야 하면서 어머니의 언어 환경을 중시하였다. 정원식(1984)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환경과 그렇지 못한 환경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가정의 언어유형이며, 이러한 언어유형은 유아의 언어발달을 위한 근원이기 때문에 언어유형이 취약하다는 것은 유아의 지적발달의 취약성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Shure와 Spivick(1978)는 어머니의 언어가 제한적이고 명령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유아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나 부정적인 협상, 권위자에게 의존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가 애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민주적이고 정교한 어법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의 유아는 자신의 요구를 충분히 설명하며 협상을 제시하고 부모의 입장을 받아들여 상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Bernstein(1961)은 언어통제 유형을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 양식으로서 이러한 언어적 표현 양식이 유아에게 부여하는 역할 재량권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Gumperz(1973)는 Bernstein(1972)의 이론에 근거하여 언어통제 유형을 가

정에서 유아의 행동을 통제할 때 사용하는 언어적 설명이나 법칙에 따라 명령적 통제 유형(imperative control), 지위적 통제 유형(positional control), 인성적 통제 유형(personal control)으로 분류하였다.

a. 명령적 통제 유형(imperative control)

유아의 행동을 통제할 때 유아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태도 및 언어, 즉 명령이나 신체적·언어적인 벌, 위협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규제할 때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배척, 철회, 수용 등을 말로써 표현하는 경우로 유아의 의도와 요구 등은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배척 철회하며, 유아에게 신체적 체벌이나 위협, 벌을 내리는 등의 통제가 이에 속한다. 따라서 유아에게 역할 재량권(role discretion)을 거의 주지 않고 제한된 어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아의 행동을 체벌 혹은 위협, 명령 등으로 어머니의 지시에 대한 복종과 수용만을 허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당장 나가', '빨리 치워', '빨리 가서 자라', 'TV 그만 봐라', '그만해', '입 다물어', '이 멍텅구리 바보 같은 것', ' 그러면 이제 너희 엄마 안해' 등이다.

b. 지위적 통제 유형(positional control)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유아에게 부여되는 역할 재량권은 제한적이며 사회의 보편적 지위에 내재된 규범을 적용하는 것으로 어머니는 자녀에게 지위, 위치 및 규범에 따른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지위에 따른 보편적 기준에는 하위 문화적 규범을 행동의 기준으로 하는 '보편적 규칙' 예를 들면, '훔치는 것은 나쁜 일 이야', 유아의 연령, 성별 등을 행동의 기준

으로 하는 '지위적 규칙', 예를 들면, '형이 동생을 때리면 되겠니 ?', 가정의 독특한 상황 또는 관계성에 따라 이미 적용하고 있는 규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가정적 규칙',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특정 장소, 시간, 상호에 제한을 두는 '한정적 규칙', 예를 들면, '우리 집 귀가 시간은 8시까지다'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지위적 통제 유형에서는 어머니나 자녀의 심리적 특성이 아니라 사회규범, 가족, 유아의 지위규범이 행동 통제시 준거가 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c. 인성적 통제 유형(person control)

행동의 결과를 유아 스스로가 인지하고 행동에 대한 판단과 책임을 유아가 질 수 있게 하는 언어유형이며 동시에 부모나 타인의 입장에 대한 고려와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유아 스스로가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아의 사회적 지위보다는 개인의 동기, 의도, 성향에의 호소와 타협을 어머니가 말로써 표현하는 것으로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 성장을 위하여 제한과 언어통제의 의도를 분명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자녀에게 행동의 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자녀가 지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어머니는 새로운 설명을 해 준다. 이처럼 인성적 통제에서의 규범은 자녀가 성취하는 것이며 어머니가 그 규범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유아 자신의 행동 결과를 스스로 인지하고 유아 자신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며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어 자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이 가능하게 되어 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너 유치원에 가지 않으면 심심하잖아', '너 유치원에 가지 않으면 선생님이 무척 걱정하실 텐데', '이렇게 늦게 다니면 엄마가 걱정하잖아', '엄마도 가끔 무엇을 잊어버리실 때가 있으니까 네가 이해해라', '잘 생각해

봐',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등의 언어 통제가 여기에 속한다.

Gumperz(1973)는 어머니가 자녀통제를 위해 사용하는 언어통제 유형과 그에 따른 언어자료의 예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밝힌 바 있다(표Ⅱ-1참고).

<표Ⅱ-1>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가족 역할 체계에서 독특한 역할 체계를 형성하고 자신 가족 특유의 언어양식을 습득하여 초기의 지적, 사회적 기초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유아는 인지적, 사회적 특성에 있어서 여러모로 다른 개인차를 보이게 된다.

<표Ⅱ-1> 언어통제유형과 언어자료의 예

통제	통제방법 및 준거		언어자료의 실례
명령적 통제	체벌		
	언어적 체벌		너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자꾸 그러면 때려 줄 거야.
	명령		가서 자.
			남의 물건 훔치지 마.
지위적 통제	지위규범	연령	너 만한 애가 누가 그런 행동을 하니.
		성별	남자애들은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게 아냐.
		상하 관계	동생이 형한테 대들면 되겠니.
	사회 및 보편규범	가족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되어 있어.
		일반	남의 물건을 훔치는 짓은 나쁜 짓이야.
인성적 통제	부모중심	인지	그런 짓을 하면 엄마가 너보고 착하다고 하겠니.
		정의	네가 자꾸 그러면 아빠가 싫어하실 거야.
		권위 강화	아빠의 입장에서 네가 옳다고 하지 않으실 거야.
	타인중심	인지	학교에 가지 않으면 성적이 떨어질 텐데.
	아동중심	정의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겠니.
			너의 생각은 잘 알겠지만.....

자료 : Gumperz J. J.(1973)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p. 485). London : Holt, Rinehart & Winston.

2. 어머니의 양육태도

a. 양육태도의 정의

양육태도(childrearing attitudes)란 부모나 부모를 대신한 다른 보호자가 유, 아동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르치고, 돌보는데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내·외현적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상로, 1979).

정신분석자인 Freud(1953)는 초기 경험이 인간의 일생을 좌우하여 요람에서의 경험이 잠재의식화 되어 일생동안 행동을 좌우하는 기반이 되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데 중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Symonds는 부모-자녀 관계를 수용-거부(Acceptance-Rejection), 지배-복종(Dominance-Subnission)의 두 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Symonds(1949)의 이론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체계화하려고 한 점에서는 공헌한바 있지만 많은 연구들이 임상사례에 준거하여 부모의 태도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전한 태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만 설명되었고, 정신분석학에 크게 의존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양육태도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특별히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자녀와 접촉이 가장 많으므로 성장,

학습, 사회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원영, 1983).

이러한 양육태도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처음에는 돌보는 사람(caretaker)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지만, 점차로 통제자(controller)로서, 그리고 사회화자(socializing agent)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신춘자, 1992)

이영화(1998)의 논문을 재인용하면 양육태도는 흔히 허용적이나 권위적이냐로 나누어 설명하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동이 무엇을 하고 싶어하고 또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모든 경험의 장에 부모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의 결정에 있어 부모는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융통성 있는 사회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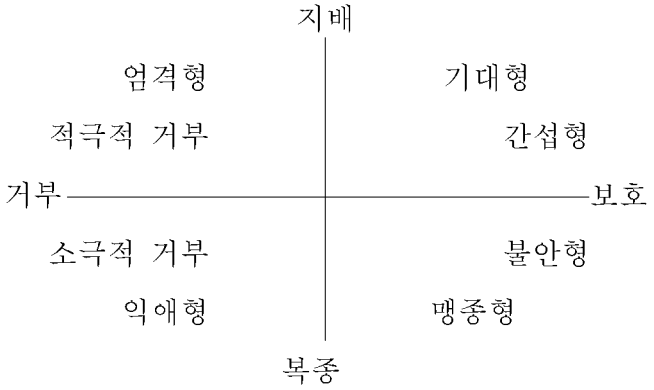
한종혜(1980)는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외·내현적 태도 및 행동이라 정의 하였으며 아동의 인성과 태도, 행동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어떠한 태도로 키웠는가 하는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보았고, 이숙(1987)은 양육태도에는 아동의 가족이 속한 사회의 가치관이 대부분 반영된다고 보았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대하는 일반적, 보편적인 태도로써 아동에 의하여 지각되고 행동으로 표출되는 반응양식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또한 부모의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신념과 가치관이 반응된 것으로써 아동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 및 표현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b. 양육태도 유형

양육태도는 18C 무렵부터 심리학과 소아학의 발달로 이해 이론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이론화한 P. M. Symonds(1949)는 양육태도를 거부-보호, 지배-복종의 2개의 요인으로 분류하고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별 자녀 특성을 〔그림 Ⅱ-1 참조〕과 같이 분류하였다.



〔그림 Ⅱ-1〕 Symonds의 양육태도 모형

첫째, 지배형은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자녀가 도달하기를 원하므로 부모 지배형의 자녀는 수용적, 의존적이며 예의는 바르나 반항적, 투쟁적 행동이 빈번하여 자립성 창조성이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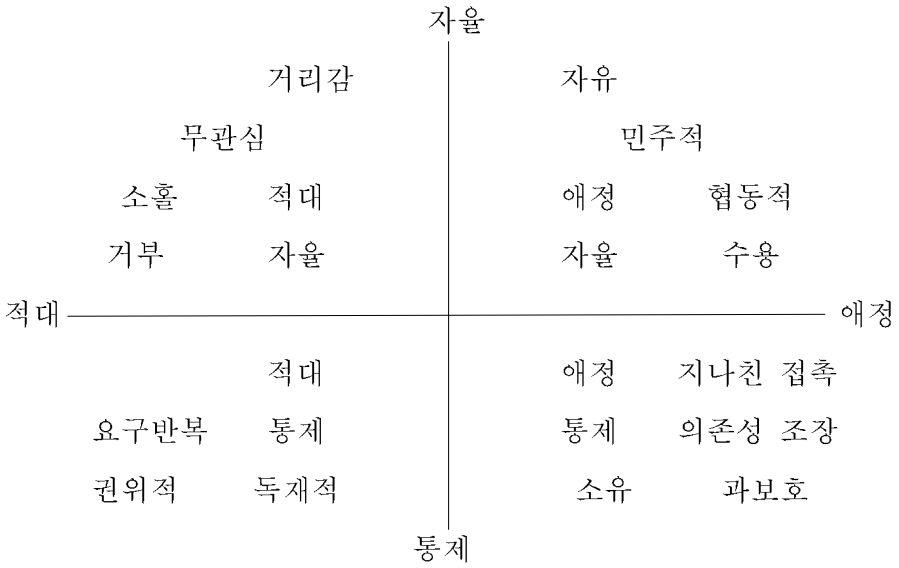
둘째, 보호형은 필요이상으로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들의 자녀들은 사회적 성숙이 부족하며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교유관계가 활발하지 못하며 책임감이 부족하고 일에 있어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는 분열적 성격이 형성되기도 한다.

셋째, 복종형은 맹목적으로 많은 양의 시간을 자녀를 위해 소비하고, 이것으로 인해 특유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다. 복종형의 자녀들은 자기중심적, 지배적이며 공격적, 반항적, 비사교적, 억지 의존성이 많다.

넷째, 거부형의 부모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애정을 거부하는 대신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벌주기의 유형으로 이들의 자녀들은 애정을 받기 위해 주

위를 끌려는 반응으로 반항, 공격, 도둑질, 거짓말, 이상행동 같은 문제행동을 유발한다.

임상적 사례에 비추어 양육태도를 연구했던 P. M. Symonds(1949) 와는 다르게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오랜 기간 연구한 E. S. Schaefer등은 「PARI」(The Parental Attitude Reseach Instrument)개발하여 신생아기부터 청소년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발달과 부모 양육태도를 함께 연구하여 애정-적대(love-hostility), 자율-통제(autonomy-control)라는 2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Schaefer(1959)의 양육태도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면 〔그림 Ⅱ-2〕와 같다.



〔그림 Ⅱ-2〕 Schaefer(1959)의 양육태도 모형

첫째, 애정적-자율적인 태도로써, 이러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로서 자녀의 행동에 자율성을 인정해주며 자녀와 민주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즉, 자녀에게 자유를 주지만 방임하지 않으며 자유와 함께 자녀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복종과 통제를 피하면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하게 하며, 자녀에게 늘 관심을 갖고 상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토의하면서 합의하는 태도를 가지므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다. 선행연구(임미영, 2004 재인용; Baldwin, 1949 ; Becker, 1964)에 의하면 이 경우의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의 자녀들은 활동적, 외향적이며 창의성이 높고 능동적이며 독립성이 강하여 사회적응을 자신 있게 하여 사교적이라 타인에게 적대감이 없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약간 공격적인 성격과 고집을 보일 때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를 Levy와 Baldwin은 부모에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이원영(1983)은 풀이하고 있다.

둘째, 애정적-통제적 태도는 자녀에게 애정을 주면서도 행동에 제약을 많이 하는 엄격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로서 이 유형의 부모들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며,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할 때 좌절감을 느끼게 하며 새로운 탐색을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반응을 습득할 기회를 축소시킨다. 권옥자(1987)는 애정적-자율적 유형의 가정에서 자란 유아보다 사교성과 창의성이 낮은 편이고 불안한 정서를 갖으며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셋째, 적대적-자율적인 태도로 자녀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녀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방임적 양육태도이다. 이러한 양육유형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 대해 거리감, 무관심, 태만,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고후순, 1985), 자신의 분노나 감정을 오히려 가정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다(Becker, 1964).

넷째, 적대적-통제적 태도는 독재적인 양육태도로서 자녀교육에 있어 자녀

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허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체벌, 심리적 통제, 언어적 통제를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양육태도 유형을 지닌 부모는 권위적, 독재적, 요구 반복적, 거부적 태도를 보이며 일관성 없는 태도로 심하게 훈육하며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유아의 행동과 태도를 평가하고 복종을 요구하며 체벌을 가하기도 한다. 이런 양육태도 하에서 양육된 유아들은 불순종적이고 반항적이며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서 거짓말을 일삼게 되고(고후순(1985), 김숙자(1989)은 자주성, 자발성, 독창성이 부족하여 주체성이 결여되며 자신감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Rohner(1991)는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람은 자라면서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게 애정을 경험하는데 개인이 경험하는 따뜻함과 애정의 정도는 아주 없는 것에서 많은 것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위치한다고 하였고, 이 연속선상을 Rohner(1991)는 부모의 애정적 차원(warmth dimension)이라고 하였으며 한쪽 끝에는 부모의 수용적 태도가, 다른 한 쪽 끝에는 부모의 거부적 태도가 있다고 하였다. 부모의 수용에는 안아주기, 쓰다듬어 주기, 웃어주기 등이 신체적 표현과 칭찬해 주거나 유아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언어적 표현이 포함되며 이러한 부모 밑에서 양육된 유아들은 능동적, 외향적, 사교적, 독립적, 창의적이다.

반대로 부모의 거부는 다음의 세 가지 중 한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애정이나 따뜻함의 결여를 의미한다. 첫째는 공격성과 적대감이다. 둘째는 와 무시와 무관심, 셋째는 모호한 거부이다. 적대감이나 무관심은 심리적인 감정으로 화냄, 분노, 악의와 유아에 대한 관심 결여이며, 공격성과 무시는 이러한 내적 상태가 행동으로 표현된 것으로 어떤 대상을 신체적(예를 들면 때리고, 물고, 의도적인 신체적 공격 등)으로나 언어(예를 들면 빈정거림, 비방, 유아에게 매우 잔혹한 말, 불친절한 언어 등)로 괴롭히려는 행동이며, 부

모가 유아들의 요구, 희망을 무시하며 관심을 잘 기울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갖고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유아는 다른 사람이나 또래에 대한 공격성이 늘어나고 부모나 어른에게 비협조적이 되며 적의를 표현하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마송희, 1991. 재인용).

Rohner(1991)는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에서 부모가 유아의 신체적, 심리적, 교육적 그리고 그 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유아는 무관심으로 표현하고 또한 부모는 유아의 필요와 관심, 희망 그리고 흥미를 무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c.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부모의 요인과 자녀의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부모의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연령이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로서, Arlene(1982)는 어머니의 연령이 가장 시기적절할 때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게 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에게 의존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이원영, 1983).

둘째,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양육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Sears(1965)도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취업 유무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던지 또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연구들도 있다(김정혜, 2001 ; 박정선, 1987 ;운현선, 1983 ;이용숙, 1988). 이용숙(1988) 등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의 일에 대한 만족도, 대리모의 질,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질을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체보다 더 어머니의 취업의 영향과 함께 보내야 할 변인으로 보았다. 또한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지배적이며 아동은 안정성이나 사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업을 갖지 않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거부적이며 아동은 복종성이 높고 자기 가정을 더 자율적으로 인지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박인덕, 1970 ; 유수남, 1980 ;유영주, 1971 ; 추영란, 1980).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종교 유무에 따른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들로는 어머니의 종교 유무에 따라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이영옥, 2003 재인용). 김정혜(2001)는 종교를 가진 어머니가 갖지 않은 어머니보다 좀 더 애정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다음은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자녀의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기대 수준은 차이가 있어 이것이 양육태도에 반영되어 이로 인해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공인숙, 1988; 오성심·이종승, 1982 ; 유안진 ,1982 이수연, 1985 ; 조희진, 1993 ; 공인숙, 1988 ; Becker,1964). 반면에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양육태도에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김옥민, 1985 ;곽용, 1985 ;김현숙, 2000 ; 도혜숙, 1997 ; 오화심, 1994 ; 이경희, 1993 ;이선희, 2000 ; 이영화, 1998).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결과(기보경, 2000 ; 김은영, 1997 ; 이선희, 2000 ; 이영화, 1998) 에 의하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어머니는 더 애정적으로 양육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박성혜, 1991 ; 우인철, 1996 ; 지명숙, 1980).

한편 유아의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유영주(1971)에 의하면 형제간의 출생순위에 따라 가정 안에서 당면하는 문제가 다르고, 그것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김순자(1982)에 의하면 첫째 아이와 둘째나 셋째에 태어난 아이 사이의 양육방법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양육경험, 연령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첫째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양육경험이 없으므로 불안을 느껴 주의를 더 기울인다는 것이다.

위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어머니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이나 종교 유무, 사회 경제적 수준 등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성별, 연령, 출생 순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자녀의 사회적·지능적·신체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양육태도는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미치게 될 영향을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다.

Baumrind(1972)는 애정적이며 동시에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Perrt & Bussey, 1984). 차경숙(1997)은 인성지향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애정, 자율적이었으며, 명령적 통제와 지위적 통제 유형의 언어를 사용하는 어머니는

적대,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양육태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경아(2000)는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에서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의 경우 인성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을 많이 사용하였고, 적대-통제적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의 경우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양육태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임은정(2002, 재인용)은 애정적 태도를 가진 부모의 자녀는 행동이 온화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명랑하고 협조적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거부적 양육태도의 자녀는 부정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양육태도는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통제유형을 사용할 때 긍정적인 발달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태도를 깊이 생각하고 유아에게 사용하는 언어를 신중히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B. 유아의 사회적 능력

1. 사회적 능력의 개념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에 대한 개념은 유아의 사회적 특성의 포괄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문화권이 가지는 가치를 반영하므로 국가, 사회마다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또는 접근방법에 따라 개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능력의 개념은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동물행동학적 관점으로 각 환경마다 지니고 있는 상황들이 개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그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형성해 나감과 동시에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는 관점으로 환경에 적합한 행동을 나타내는 적응과정을 말한다. White, Kaban & Attanucci(1979)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질적, 정서적인 자원을 얻어서 원활하게 사회로 이입해 가는 능력을 사회적 능력으로 설명하였다.

Krasnor & Rubin(1983)은 사회적 능력을 사회적인 문제해결을 대인관계에서 도움을 얻고 대화를 주도하는 행위로 보았다(최경순, 1992 재인용).

Zigler와 Trikett(1978)은 사회적 능력이란 개인이 환경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문제를 인식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고, 내용으로는 적절한 형식적인 개념을 습득하는 능력, 학교생활을 잘 수행하는 능력, 성인이나 다른 아동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능력 등 개인이 환경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 인성구조론적 관점으로 다양한 구성인자로 형성 되어있는 인성구조 중에서 긍정적인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특성들을 사회적 능력으로 보는 것이다.

Schaefer(1965)는 인성연구에서 두 가지 속성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모델로서, 긍정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으로 구분하였다. 긍정적 속성의 행동을 애

정, 접근성, 외향성으로 보고, 부정적 속성의 행동은 적대감, 회피성, 내향성으로 보았다(이동희, 1995). Kohn과 Rosman(1972)은 사회적 능력은 생후 3년 동안에 어머니와 유아사이의 상호관계를 반영한다고 보고하면서, 사회적 능력이 있는 유아는 관심과 호기심이 많고 교사의 제안에 따르는 한도 내에서 주장하며,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유아는 위축되어 있고 관심이 부족하며, 비협조적이고 학급 내에서 문제를 자주 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 동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White(1959)는 사회적 능력에는 기는 것, 걷는 것, 관심을 갖는 것, 파악, 탐구, 지각, 언어, 사고 등을 능력으로 표현하면서 인간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본능적인 동기를 갖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Bronson(1974)은 사회적 능력과 동기는 서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동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보았다(이경희, 1993 재인용).

넷째, 사회적 상호작용 입장으로서의 관점이다. Weinstein(1969), (송인우, 2001 재인용)은 사회적 능력을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으로 타인과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행동 목록의 소유, 상황에 적절히 효율적인 기술을 나타내게 해 주는 개인 내적 자원의 소유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Baumrind(1973)는 능력있는 유아는 책임감 있고 독립적인 아이라고 생각하고 우수한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도구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도구적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사회적 반응성, 독립성, 성취지향성, 활력 등이 있다. Pease(1979)는 사회적 능력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사회적 인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5가지 요인의 사회적 측정 도구를 개발했다. 즉 사회적 활동성, 협조성 등의 긍정적 행동을 나타내는 요인과 과민성, 비협조성 등 부정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분류하

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네 가지의 관점은 접근방법에 따라 그 개념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고 여러 개념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능력은 환경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속한 사회 구조 내에서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기술 측면에서의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2. 사회적 능력의 측정방법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행동관찰법, 또래가 측정하는 사회성 측정법(Sociometrics), 교사나 부모가 측정하는 평정척도법, 자기보고방법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행동관찰법, 사회성 측정법과 평정척도법이다. 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관찰법은 학교나 가정에서 훈련된 관찰자가 시간표집과 사건표집 절차에 의해서 유아의 자연스런 놀이 상황에서의 대인관계 행동 등 사회적 상황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특정 상황에서 다양한 행동의 기능적 효과를 비디오 촬영에 의한 행동연구나 좀 더 다양한 측정방법으로 조사하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행동관찰법은 사회적 행동의 전후관계를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 중재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으나 한정된 관찰 상황으로 인한 전후관계의 판단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송

인우, 2001 재인용 ; Foster, 1979).

둘째, 사회성 측정법은 '또래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하는 그 인기도를 사회적 능력의 지표로 간주하고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인기도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또래 평정척도법(Peer Rating Scales)과 또래 지명법(Peer Nomination)의 방식이 있다.

또래 평정척도법은 유아가 또래들에 의해 얼마나 수용되어 있는가를 서로 평정하여 종합하는 방법으로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집단 내의 모든 아동을 평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실시상 문제점이 있고 준거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지적이 있다(최경순, 1992).

셋째, 평정척도법으로는 교사의 평정척도와 부모의 평정척도가 있다. 교사의 평정척도는 Kohn과 Rosman(1972)에 의한 척도 등이 있으며, 교사의 평가 방법이 또래에 의한 사회 측정법보다 사회적 능력을 잘 평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교사 한 사람이 다수 학생을 평정하게 되므로 교사의 주관이나 성격특성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능력 평가가 좌우 될 우려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부모의 평정척도는 Pease, Clark와 Crase(1979)에 의한 ISCS(Iowa Social Competence Scale)가 있는데 이들은 사회적 능력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사회적 인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도구를 취학 전과 학령기 아동용으로 나누었다. 이경우의 부모는 아동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상황의 전체적 맥락속에서 유아를 관찰할 수 있으므로 유아의 행동을 평가하는데 가장 유리한 입장이 있으며(이병림, 1990 ; Seara, Maccoby & Levin, 1957)지속적으로 아동의 행동을 관찰, 파악할 수 있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는데 좋은 평가자가 될 수 있다. 반면, 부모 평정의 타당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아동의 능력

과 무관한 다른 변인들이 부모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 자기보고방법은 학교 및 놀이 활동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만족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아에 대한 자유기술의 방법과 평정척도가 연령이 낮은 취학 전 유아에게 적절한 방법인가 또는 자기 보고식 자료가 신뢰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드물게 사용되어 왔다(도혜숙, 1996 재인용 ;Ford, 1982 ; Green, 1980).

Greshan(1981)은 사회적 능력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또래 평정척도법, 또래 지명법과 행동관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세 가지의 평가방법을 각각 다른 차원을 측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행동관찰법은 또래 평정척도법이나 또래 지명법과는 달리 사회적 능력 차원을 측정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용과 시간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이 뒤따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가정 및 사회생활을 직접 관리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에 비해 유아행동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평정하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C.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 중 부모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언어적 요소가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다.

Bryan & Walbek(197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훈육, 양육방식이 단순히 사회적 규범만을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는 나누기 행동을 가르치는데 효과적이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에 다니는 흑인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의 자율적 성취와 어머니의 양육방법을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방법은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이나 협조성과는 정적으로, 회피성과 적대감과는 부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어서 사회적 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Emmerch, 1977).

Rosen(1980)은 엄격한 양육방식을 취하는 부모의 자녀보다 민주적이면서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부모의 자녀가 또래관계에서 친절하고 보다 안정성이 있으며 사회적 능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Baruch와 Barnett(1981)의 연구에서는 지나치게 통제적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어머니의 딸은 비교적 낮은 사회적 능력을 나타낸 반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 준 어머니의 딸은 더 높은 사회적 능력을 나타냈다.

McDonald와 Parke(1984)는 그들의 연구에서 여아의 경우 어머니가 지시를 많이 할수록, 남아의 경우 어머니와 언어적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부모의 행동유형은 자녀로 하여금 환경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기술과 자신의 감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녀의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성 발달에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Shure & Spivack, 1984).

Shaffer(1994)는 이성적이고 애정적인 부모의 양육이 타인의 고통과 관점을 경험하게 하며, 자녀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을 기분 좋게 하는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 줌으로서 미래에 친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인 명령적 언어, 지위적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황이나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과 이해를 돕는 언어를 사용할 때,

유아 스스로 행동한 것을 자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D.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어 왔다.

Ainsworth와 Bell(1974)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는 선천적으로 타인과 협력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선 어머니가 유아의 욕구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했다. Baumrind와 Black(1976)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친밀감과 자기 의존적이며 탐구적인 특성을 지닌 유아의 부모는 일관성 있고 애정적이면서도 자녀에게 적당한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자녀의 말을 들어 주며 감정적 지지도 제공하는 등의 높은 관심을 지닌 양육태도를 나타냈다(김정아, 1990).

Turner와 Harris(1984)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보호, 관대, 엄격, 거부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일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낮게 나타났다(이동희, 1995).

손혜련(1996)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모자간 애착에 영향을 주고, 그것은 다시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자간 애착만이 사회적 능력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했다.

국내 다수의 연구들에서도 인성적 언어통제 유형이 자녀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되어 포괄적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이 아동의 창조적 의사소통, 공격성, 자존감, 내외통제성, 사회적 능력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안명신, 1987 ; 이경희, 1993 ; 이완정, 1990 ; 조희진, 1982).

따라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의미있는 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들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실증해 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와 D읍에 소재한 2개의 사립유치원과 2개의 어린이 집에 다니는 만 2세에서 6세 까지의 유아의 어머니 2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260부가 배부 되었으며 그 중 212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중 성실히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자료 52부를 제외한 160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중 어머니와 유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1〉, 〈표 Ⅲ-2〉와 같다. 〈표 Ⅲ-1〉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표로서 연령별로는 30대의 어머니가 전체의 73.8%로 나타남으로서 아동 3세에서 6세까지의 어머니들의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를 검증하기에 적절한 표본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의 경우 현대의 어머니들이 대부분 직장을 겸하는 세대로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교는 62.2%, 가정의 월 소득은 200만원 이상이 전체의 68.8%를 차지하고 있어 중산층의 그룹을 형상하여 자료검증에 적절한 표본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Ⅲ-1〉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N=160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연 령	30세 이하	33	20.6
	31 - 35세	59	36.9
	36 - 40세	59	36.9
	41세 이상	9	5.6
학 력	중졸	5	3.1
	고졸	54	33.8
	대졸	93	58.1
	대학원졸이상	8	5.0
취 업	유	114	74.0
	무	40	26.0
종 교	유	92	62.2
	무	56	37.8
가정 월 소득	100만원 미만	13	8.3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6	22.9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8	24.2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6	22.9
	400만원 이상	34	21.7

〈표 Ⅲ-2〉는 유아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남·여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고, 연령은 만 4세 이상의 유아가 전체의 70.2%로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적응할 수 있는 연령대이며, 출생순위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첫째나 둘째의 경우가 전체의 70.9%로서 자료검증에 적절한 표본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Ⅲ-2〉 유아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71	44.4
	여	89	55.6
연 령	만 2세	22	13.8
	3세	26	16.2
	4세	40	25.0
	5세	41	25.6
	6세	31	19.4
출생 순위	외 동	21	13.1
	첫 째	69	43.1
	둘 째	46	28.8
	셋째 이상	24	15.0

B.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의 측정도구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의 측정도구는 Bernstein(1971)과 Gumperz(1973)의 정의에 근거한 언어통제 하위 개념의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제작되어 사용된 도혜숙(1997)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부록 1참조)

설문지의 항목은 가정에서 어머니와 자녀 간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언어통제 유형으로 총 25문항 구성되었

으며, 어머니가 자유롭게 반응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5단계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응답 방식은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에는 0에,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에는 1에,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에는 2에,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에는 3에,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에는 4에 반응하는 점수를 주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25문항을 언어통제 유형의 하위영역에 따라 명령적 통제에 대해 1문항, 지위적 통제에 대해 1문항, 인성적 통제에 대해 1문항,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Ⅲ-3〉은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의 문항 분석 현황이다.

〈표 Ⅲ-3〉 문항별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문 항 번 호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1	2	1	3
2	1	2	3
3	1	2	3
4	3	2	1
5	1	2	3
6	3	2	1
7	1	2	3
8	1	2	3
9	1	3	2
10	3	2	1
11	1	2	3
12	2	1	3
13	1	2	3
14	2	3	1
15	1	3	2
16	1	3	2
17	1	2	3
18	2	1	3
19	1	2	3
20	1	2	3
21	1	2	3
22	1	2	3
23	1	2	3
24	3	1	2
25	3	2	1

한편 척도를 사용하기에 충분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추출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회전 방법으로는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Ⅲ-4〉 와 같다.

〈표 Ⅲ-4〉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의 하위 요인 및 신뢰도

	성분		
	1	2	3
8-1. 네가 몰래 그러다니 엄마는 너무 속상해!	0.702		
18-2. 너는 왜 바보처럼 혼자 유치원(어린이집)에도 못가니?	0.679		
22-1 애가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 잘보고 써봐.	0.668		
19-1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니? 혼나고 싶어?	0.663		
3-1. 네가 결석하면 선생님이 무척 걱정 하실 텐데.	0.622		
14-2. 너희들이 싸우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해. 싸우니까 너도 속상하지?	0.615		
13-1.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0.609		
23-1. 유치원(어린이집)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0.600		
16-1. 너는 바보같이 맞고만 다니니? 다시는 맞고 오지마!	0.599		
21-1. 어서 와서 밥 먹어!	0.586		
10-3.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놀다보면 덜 심심할 것 같은데.	0.583		
20-1. 엄마가 하는 이야기 안 들리니? 엄마가 말하면 들어야지.	0.578		
25-3. 네가 잘 벗어서 걸어놓으면 엄마가 다시 정리를 안 해도 되잖니!	0.570		
24-3. 이 옷이 어때서 그래. 어서 입어.	0.565		
6-3. 싫더라도 엄마가 바빠서 그러니 도와주면 좋겠구나.	0.555		
4-3. 그렇게 버릇없이 굴면 손님이 흉보겠다.	0.541		
1-2. 신발이 그게 뭐니? 똑바로 해놓고 와.	0.528		

5-1. 아휴, 저 더러운 손, 빨리 씻고 와!	0.503		
17-1. 누가 꽃을 꺾으랬어? 다음부터는 꺾지 마라.	0.491		
9-1. 식사할 때는 조심해서 먹어야지!	0.454		
15-1.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	0.438		
11-1. 너 왜 자꾸 거짓말을 하니? 거짓말 하면 또 혼난다.	0.429		
7-1. 인사를 잘 해야 착한 사람이지!	0.421		
2-1. 어디서 그런 나쁜 욕을 배웠어? 다시 그런 욕을 하면 혼내 줄꺼야!	0.390		
6-2. 잔소리 말고 빨리 갖다와, 안가면 혼낼꺼야.		0.769	
11-2. 만약에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봐. 너도 기분이 나쁘지 않겠니?		0.741	
25-2 옷을 제대로 벗어서 잘 걸어 놓아야지.		0.677	
7-2. 인사할 줄도 몰라? 어서 인사 해.		0.675	
15-3. 그만 졸라. 계속 그러면 야단맞는다.		0.656	
14-3. 형제끼리는 서로 의좋게 지내야지.(형/오빠/언니/누나가 동생을 때리면 되겠니? 동생이 언니/형/누나/오빠를 때리면 되겠니?)		0.652	
11-1. 너 왜 자꾸 거짓말을 하니? 거짓말 하면 또 혼난다.		0.649	
8-2.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샀어야지!		0.630	
20-2. 계속 그러면 친구 데리고 못 오게 할꺼야.		0.616	
22-2. 엄마가 가르쳐 주면 열심히 배워야지!		0.598	
24-1. 엄마가 보기에는 다른 옷도 너에게 참 어울린다고 생각되는데.		0.542	
9-3. 다른 식구들이 먹을 국을 다 엎질러서 어떡하니?		0.528	
4-2. 너 왜 손님 앞에서 철없이 그러니? 의젓해야지.		0.509	

16-3. 많이 아프겠구나. 어서 씻고 약 바르자.		0.507	
23-2. 네가 약속을 못 지켜서 선생님이 속상 하셨겠다.		0.503	
10-2. 너 혼자서도 잘 놀아야지 착한 아이지.		0.501	
5-2. 손이 더러우면 네 손에 있는 더러운 병균도 같이 먹게 될 텐데.		0.490	
18-1. 네가 혼자 다녀온다면 엄마는 이제 다 커서 혼자서도 유치원(어린이집)에 잘 다녀오는 네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0.467	
17-2. 네가 꺾지 않았더라면 꽃도 안 아프고 다른 사람들도 예쁜 꽃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을텐데.		0.467	
2-2. 욕은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야.		0.429	
3-2. 아무 이유 없이 결석하는 것은 나쁜 일이야.		0.410	
21-2. 네가 빨리 안 오면 식구들이 기다리잖니.		0.410	
19-2. 엄마께 그러면 되겠니? 그러지 말고 아빠께 말씀드려.		0.367	
13-2. 어서 가서 자거라(TV를 끈다).		0.350	
1-1. 자기 신발을 바로 해 놓을 수 있어야지.		0.268	
22-3. 이것을 알아야 동화책도 읽고 숫자도 셀 수 있어서 다른 것도 알 수 있지.			0.704
3-3. 유치원(어린이집)에 왜 안가? 꾀부리지 말고 어서 가.			0.612
23-3. 왜 약속을 못 지켰어? 다시 또 그러면 엄마한테도 혼난다.			0.602
20-3. 엄마가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시끄러워서 쉴 수가 없구나.			0.494
19-3. 아빠가 바빠서 깜빡 잊으신 모양이다. 같이 가서 말씀드려 보자.			0.572
21-3. 아무리 재미있어도 식사시간엔 밥을 먹어야지.			0.563

18-3. 씩씩한 어린이는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어야지.			0.561
5-3.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지.			0.336
8-3. 도둑놈 되고 싶어 그래? 다음에 또 그러면 혼날 줄 알아!			0.652
13-3. 늦게 자면 내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늦잖니 ?			0.573
7-3. 네가 인사를 드리지 않아서 서운해 하시겠다.			0.726
2-3. 네가 욕하고 다니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엄마 흉보겠다.			0.510
1-3. 네가 신발을 똑바로 해 놓으면 엄마가 다시 정리를 안 해도 되잖니!			0.412
17-3. 길가에 심어져 있는 꽃이나 나무는 꺾는게 아냐.			0.53
11-3. 거짓말은 나쁜 사람이 하는 거야.			0.637
24-2 어떤 옷이든지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면 되는 거야.			0.467
9-2 또 쏟았어? 너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서 어떡할래?			0.665
15-2. 네가 자꾸 이러면 엄마 마음도 속상하단다.			0.563
16-2.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야지. 싸우는 건 나빠!			0.490
6-1. 엄마가 말하는데 싫어가 뭐야, 엄마가 하라면 해야지.			0.657
14-1. 얘들이 왜 이래. 그만 두지 못해!			0.701
18-1. 얘가 왜 이래? 빨리 나가서 놀지 못해!			0.744
25-1. 넌 손이 없니? 빨리 치워.			0.652
4-1. 너 이제 혼날 줄 알아.			0.597

2. 어머니의 양육태도 측정도구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박영애(1995)가 제작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지 4단계 척도를 5단계 척도로 수정, 보완하여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부록 Ⅱ 참조).

설문지의 항목은 각 문항은 5단계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응답 방식은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아주 다르다'에 1, '별로 비슷하지 않다'는 2, '보통이다'는 3, '대체로 비슷하다'에는 4, '아주 비슷하다'에는 5에 반응하는 점수를 주었고, 어머니의 질문지를 3개의 하위요인(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으로 각각 38, 30, 12 문항씩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어머니 양육태도 척도의 80문항의 구성은 〈표 Ⅲ-5〉 와 같다, 양육태도 유형의 하위영역 척도를 사용하기에 충분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추출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다. 회전 방법으로는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Ⅲ-6〉 과 같다.

〈표 Ⅲ-5〉 어머니 양육태도 척도의 문항구성

하위 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온정 · 수용	38	1, 4, 6, 8, 11, 13, 15, 17, 19, 21, 24, 26, 28, 30, 32, 34, 36, 39, 41, 43, 45,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거부 · 제재	30	2, 5, 7, 9, 12, 14, 16, 20, 22, 25, 27, 31, 33, 35, 37, 40, 42, 44, 46, 49, 51, 53, 55, 57, 61, 63, 65, 69, 73, 75
허용 · 방임	12	3, 10, 18, 23, 29, 38, 47, 59, 67, 71, 77, 79
합계	80	

〈표 Ⅲ-6〉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의 하위 요인 및 신뢰도

	성분		
	1	2	3
41. 자녀가 한일이 대견스러워 칭찬을 해 주는 때가 많다.	.810		
39. 자녀가 밖에서 들어 올 때 반갑게 맞아 주려고 노력한다.	.800		
78. 자녀가 아플 때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준다.	.788		
56. 자녀가 자신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 주려고 노력한다.	.787		
70.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781		
43. 여가 시간을 자녀와 함게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757		
80. 자녀가 걱정되는 일이 있어 말을 하면 함께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742		
17. 자녀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자주 해 준다.	.732		
45. 자녀가 궁금해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한다.	.732		
66. 자녀가 도움을 꼭 필요로 할 때는 기꺼이 도와준다.	.728		
8. 자녀가 원하는 것은 가능 하면 들어 주려고 노력한다.	.711		
28. 자녀에게 착하다거나 기특하다 라는 말을 자주한다.	.697		

36. 자녀가 말을 할 때는 끝까지 들어준다.	.677		
48. 자녀의 기분을 잘 이해해주는 편이다.	.674		
72. 나는 자녀에게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661		
13. 자녀와 함께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654		
26. 자녀에게 '수고했다' 또는 '고맙다'라는 말을 한다.	.644		
76. 자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이야기 해준다.	.643		
32. 자녀가 기뻐할 일들을 생각했다가 그렇게 해 주곤 한다.	.641		
58. 늘 웃는 얼굴로 자녀를 대해준다.	.637		
68. 가능한 한 자녀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주려고 노력한다.	.629		
11. 자녀가 실수를 하면 다음에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준다.	.625		
50. 자녀가 아직 나의 도움이 필요할거라고 생각되어 가능한 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준다.	.602		
34. 자녀와 함께 읽거나 본 것들에 대해 같이 이야기 하는 것을 즐긴다.	.600		
6. 자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575		
62.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혼자서 해보도록 권한다.	.573		
19. 자녀가 공부나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어하면 할 수 있는데 까지라도 혼자서 해보라고 말해준다.	.562		
60.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나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준다.	.557		
64. 가족이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들어본다.	.532		
74. 자녀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다.	.524		
1. 의견이 서로 다를 때는 그 애의 생각을 먼저 들어본다.	.485		

24. 예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준다.	.485		
4. 자녀가 집에 돌아오면 바깥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483		
21. 자녀를 키울 때의 재미난 추억들을 이야기해준다.	.459		
15. 자녀가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해 두고서 반드시 지키게 한다.	.400		
30. 자녀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제나 잘 알고 있다.	.336		
54.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자녀가 직접 불편을 겪어보고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327		
52. 가능한 한 모든 일을 집에서 하게한다.	.293		
69. 자녀 때문에 속이 너무 상하면 보기도 싫다고 말하게 된다.		.719	
16. 내가 시키는 일을 즉시 하지 않으면 화를 내게 된다.		.698	
20. 자녀가 집에서 어지르거나 시끄럽게 하고 다니면 짜증스러워서 야단을 친다.		.695	
55. 기분이 언짢을 때는 조그마한 일로도 화가 나서 야단을 치게 된다.		.662	
7.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는 너 때문에 속이 상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660	
65. 말을 안 들으면 결국 때려준다.		.648	
37. 너 때문에 내가 힘이 든다는 말을 자녀에게 한다.		.632	
63. 자녀가 잘하는 것은 모르겠고 잘못하는 것만 금방 눈에 띄어 야단을 칠 때가 많다.		.629	
49. 자녀를 부당하게 또는 지나치게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다.		.615	
14. 자녀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낼 때가 많다.		.603	
27. 자녀에 대한 나의 불만을 자주 나타내는 편이다.		.598	
61. 자녀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상해서 어머니 애쓰는 것도 몰라준다고 불평을 한다.		.588	

22. 자녀가 실수를 하면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나 싶어 핀잔을 주게 된다.		.585	
73. 자녀가 잘못했던 것들을 두고두고 몇 번씩 말 할 때가 많다.		.582	
12. 내 자식이지만 자녀가 정말 미울 때가 있다.		.552	
75. 어른과 다른 의견을 주장하려하면 버릇이 없다고 야단을 쳐준다.		.538	
25.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엄마가 하라면 해' 라는 식으로 명령을 해서라도 말을 듣게 한다.		.530	
44. 자녀를 보면 답답해서 바보 같다는 말을 하게 된다.		.528	
53. 자녀의 말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믿게 될 때가 많다.		.524	
42. 자녀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좋은지를 내가 판단해준다.		.511	
33. 다른 사람이 하면 괜찮은 일도 그 애가 하면 야단을 하게 된다.		.518	
35. 자녀가 억울하다고 불평이나 항의를 하려고 하면 일단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518	
40.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면 혹시라도 잘못 될까봐 자세하게 이것저것 충고를 한다.		.483	
57.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커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러느냐는 말을 자주한다.		.482	
31.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까봐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해서 하게 한다.		.459	
5. 너 같은 애를 둔 것이 창피하다는 투의 말을 한다.		.453	
9. 자녀가 기관에서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오면 그것 때문에 집에서 또 혼을 낸다.		.451	
46. 자녀가 무슨 말을 하면 보통 건성으로 대꾸 할 때가 많다.		.450	
2. 자녀가 뭘 하든 좀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295	

51. 자녀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는 내 의견과 충고를 따르도록 한다.		.281	
59. 자녀가 조르는 것은 대체로 다 사준다.			.630
29.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 버릴 때가 많다.			.575
77. 자녀가 할 것을 안 하고 딴 짓을 하고 있어도 야단을 치기가 어렵다.			.566
71. 자녀가 무엇을 하든 도대체 상관을 안 하는 편이다.			.545
38. 하면 안 되는 일도 자녀가 조르면 그냥 하게 놔둔다.			.543
10. 자녀가 간혹 잘못한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497
47. 어떤 규칙이라도 꼭 지키게 하려고 애쓰지는 않는다.			.386
79. 하려고 했던 일도 자녀가 싫다고 하면 끝까지 시키지 않는다.			.360
23. 될 수 있으면 자녀의 감정을 건드리기 싫어서 내버려 둔다.			.351
67.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자녀가 잘못을 해도 야단을 치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			.342
3. 자녀가 하고 싶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하게 해준다.			.318
18. 어떤 것이든 자녀가 싫다고 하면 그만 두라고 한다.			.314

3. 사회적 능력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 측정도구는 어머니용으로서 구체적 문항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미경(2007)이 유아의 수준에 맞게 개작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부록 Ⅲ참조).

척도는 유능성, 지도력, 불안정성(소심·민감성 불안), 부모에 대한 애정,

방해성 등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들로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항목은 어머니께서 평소에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느끼는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단계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응답 방식은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1에, '거의 그렇지 않다'에는 2에, '보통이다'에는 3에, '대체로 그렇다'에는 4에, '매우 그렇다'에는 5에 반응하는 점수를 주었다.

〈표 Ⅲ-7〉 은 구성된 측정도구의 35문항을 유아 사회적 능력의 하위영역에 따라 각 요인별로 문항을 분석한 표이다. 〈표 Ⅲ-8〉 은 척도를 사용하기에 충분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추출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회전 방법으로는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Ⅲ-7〉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각 요인별 문항구성

하위 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유능성	7	5, 11, 15, 18, 21, 27, 29
지도력	7	6, 8, 13, 25, 30, 31, 34
불안정성(소심 · 민감성불안)	8	2, 4, 7, 14, 16, 17, 20, 26
부모에 대한 애정	6	3, 12, 22, 23, 32, 35
방해성(소극적 공격성)	7	1, 9, 10, 19, 24, 28, 33
합 계	35	

〈표 Ⅲ-8〉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 요인 및 신뢰도

	성분				
	1	2	3	4	5
29. 자신에게 다소 무리가 되는 일들도 끝까지 해본다.	.781				
18. 힘에 벅찬 일이라도 어른이나 다른 아이(또는 형제, 자매)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해결한다.	.683				
11. 다른 아이(또는 형제, 자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	.611				
5. 뭐든지 잘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537				
15. 어른이 지시를 하면 잘 알아듣고 그대로 행동한다.	.516				
21. 일을 시키면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	.512				
27.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나 놀이를 먼저 제안한다.	.468				
8.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주도하면 다른 아이들이 따라한다.		.742			
31. 다른 아이(또는 형제, 자매)에게 게임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733			
25. 우리 아이가 제안을 하면 다른 아이들이 따라한다.		.634			
30. 다른 아이(또는 형제, 자매)들과 놀 때 자기 주관대로 행동을 한다.		.634			
6. 다른 아이들과 놀 때 자주 대장노릇을 한다.		.572			
13. 다른 아이(또는 형제, 자매)들과 어울려 놀 때 우리 아이가 활동을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408			
34. 바람직한 행동으로 칭찬을 자주 듣는다.		.373			
20. 자주 깜짝 놀라거나 당황해 한다.			.737		
4. 다른 아이(또는 형제, 자매)와 놀이를 하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			.648		
17.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또는 형제, 자매)들이 이야기하면 기분 상해한다. (예 : 울어버			.633		

리거나 속상해 한다.)					
14. 아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554		
7. 다른 아이(또는 형제, 자매)가 자기 방식대로 잘 따르지 않으면 하던 놀이를 그만 둔다.			.550		
2. 낯선 곳에 가면 몹시 불안해한다.			.522		
16.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금방 울거나 당황해 한다.			.512		
26. 누군가가(특히 가족 이외의 사람) 자신의 행동을 흠잡거나 바로 잡아 주려고 하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예 : 화를 내거나, 토라지거나, 시무룩해진다.)			.411		
22. 나에게 애정표시를 한다.				.757	
3. 나에게 뽀뽀를 하거나 안기는 등 신체적 애정표현을 자주한다.				.711	
23. 내 기분이 나빠 보이면 즉시 내게 다가와서 말을 건다.				.581	
12. 나의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예 : 나를 껴안거나 만지려하고 기대려고 한다.)				.535	
35.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꼭 나에게 주려고 한다.				.529	
32. 바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455	
28. 아이들(또는 형제, 자매)과 놀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705
10. 다른 아이(또는 형제, 자매)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598
9. 다른 아이(또는 형제, 자매)에게 욕하거나 약올리기를 좋아한다.					-.572
24. 다른 아이(또는 형제, 자매)들이 놀 때 방해를 한다.					.563
1. 다른 아이(또는 형제, 자매)가 칭찬을 받으면 심술을 낸다.					.517
19. 다른 사람(또는 형제, 자매)들이 이야기할 때 말 참견을 한다.					.516
33.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아이와는 놀지 않는다.					.439

C. 연구 기간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는 2009년 7월 21일 부터 2009년 7월 24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2곳의 사립 유치원과 2곳의 어린이집을 기관장의 허락을 얻은 후 방문하여 각 해당 연령의 담임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였다. 또한 유아교사들이 연구 검사지를 가정통신문과 함께 유아편으로 각 가정의 어머니께 보내어 검사지 작성 후 다시 기관에 등원하는 자녀를 통하여 담임교사가 회수하는 절차를 거쳤다.

D.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수립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 그리고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 그리고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연령, 학력, 취업유무에 따른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를 파악하고,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 및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비교·분석하여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A.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의 차이

1.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언어통제 유형의 차이

a.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언어통제 유형의 차이

〈표 Ⅳ-1〉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언어통제유형에서는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령적 통제에서는 30세 이하 어머니가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1세 이상 어머니가 1.48로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5.888,

$p<.05$)

지위적 통제에서는 30세 이하 어머니가 2.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1세 이상 어머니가 1.55로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6.006, $p<.05$)

인성적 통제에서는 30세 이하 어머니가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1세 이상 어머니가 1.58로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7.526, $p<.05$)

통계적으로 모든 언어통제 유형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Ⅳ-1〉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언어통제유형 (N=160)

언어통제 유형	연령	n	M	SD	F (p)
명령적 통제	① 30세 이하	33	2.0937	.48374	5.888^{***} .001
	② 31 - 35세	59	1.7044	.44278	
	③ 36 - 40세	59	1.8805	.57019	
	④ 41세 이상	9	1.4876	.40994	
	평균	-	1.8374	.52296	
지위적 통제	① 30세 이하	33	2.1636	.51438	6.006^{***} .001
	② 31 - 35세	59	1.7272	.47647	
	③ 36 - 40세	59	1.8527	.58484	
	④ 41세 이상	9	1.5504	.40674	
	평균	-	1.8535	.54794	
인성적 통제	① 30세 이하	33	2.1752	.52731	7.526^{***} .000
	② 31 - 35세	59	1.6607	.42932	
	③ 36 - 40세	59	1.9069	.62392	
	④ 41세 이상	9	1.5898	.50810	
	평균	-	1.8536	.56431	

$^{***}p<.001$

b.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언어통제 유형의 차이

〈표 Ⅳ-2〉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언어통제유형으로서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령적 통제(F=1.629, p>.05), 지위적 통제(F=.779, p>.05), 인성적 통제(F=.888, p>.05) 모두, 통계적으로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언어통제 유형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2〉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언어통제유형

언어통제 유형	학력	*n*	*M*	*SD*	*F* (*p*)
명령적 통제	① 중학교 졸업	5	2.1280	.86644	1.629 .185
	② 고등학교 졸업	54	1.9040	.54700	
	③ 대학교 졸업	93	1.7688	.47677	
	④ 대학원 이상	8	2.0039	.58427	
	평균	-	1.8374	.52296	
지위적 통제	① 중학교 졸업	5	2.1040	.75504	.779 .507
	② 고등학교 졸업	54	1.8888	.59535	
	③ 대학교 졸업	93	1.8084	.51619	
	④ 대학원 이상	8	1.9832	.45600	
	평균	-	1.8535	.54794	
인성적 통제	① 중학교 졸업	5	2.1040	.87891	.888 .449
	② 고등학교 졸업	54	1.9026	.61955	
	③ 대학교 졸업	93	1.8003	.50452	
	④ 대학원 이상	8	1.9868	.64712	
	평균	-	1.8536	.56431	

c.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언어통제 유형의 차이

〈표 Ⅳ-3〉 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언어통제유형을 살펴본 결과,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령적 통제(t=.409, p>.05), 지위적 통제(t=.1.853, p>.05), 인성적 통제(t=.1.004, p>.05) 모두 통계적으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언어통제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3〉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언어통제유형

언어통제유형	취업유무	*n*	*M*	*SD*	*t* (*p*)
명령적 통제	① 유	114	1.8444	.51339	.409 .683
	② 무	40	1.8050	.55527	
지위적 통제	① 유	114	1.8949	.54948	1.853 .066
	② 무	40	1.7092	.53228	
인성적 통제	① 유	114	1.8780	.56538	1.004 .317
	② 무	40	1.7726	.58965	

2.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

a.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

〈표 Ⅳ-4〉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이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 온정·수용, 허용·방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거부·제재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수용 에서는 30세 이하 어머니가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1세 이상 어머니가 2.01로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6.175, p<.05)

거부·제재 에서는 36-40세 어머니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1세 이상 어머니가 3.355로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017, p>.05),

허용·방임 에서는 36-40세의 어머니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1세 이상 어머니가 3.24로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720, p<.05)

〈표 Ⅳ-4〉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N=160)

양육태도	연령	*n*	*M*	*SD*	*F* (*p*)
온정·수용	① 30세 이하	33	2.6141	.60991	6.175*** .001
	② 31 - 35세	59	2.3189	.48848	
	③ 36 - 40세	59	2.1648	.52357	
	④ 41세 이상	9	2.0147	.38047	
	평균	-	2.3059	.54878	
거부·제재	① 30세 이하	33	3.3620	.41898	.018 .997
	② 31 - 35세	59	3.3578	.45343	
	③ 36 - 40세	59	3.3786	.60697	
	④ 41세 이상	9	3.3556	.77567	

	평균	-	3.3662	.52449	
허용・방임	① 30세 이하	33	3.3434	.48357	3.720* .013
	② 31 - 35세	59	3.4619	.41733	
	③ 36 - 40세	59	3.6145	.46580	
	④ 41세 이상	9	3.2407	.31854	
	평균	-	3.4813	.45693	

***p<.001, *p<.05

b.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

〈표 Ⅳ-5〉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수용(F=2.116, p>.05), 거부・제재(F=.1.292, p>.05), 허용・방임(F=.1.227, p>.05) 로 통계적으로 모든 양육태도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5〉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

양육태도	학력	n	M	SD	F (p)
온정・수용	① 중학교 졸업	5	2.4263	.73670	2.116 .100
	② 고등학교 졸업	54	2.4253	.59249	
	③ 대학교 졸업	93	2.2574	.51855	
	④ 대학원 이상	8	1.9873	.26623	
	평균	-	2.3059	.54878	
거부・제재	① 중학교 졸업	5	3.3467	.50144	1.292 .279
	② 고등학교 졸업	54	3.2820	.56723	

	③ 대학교 졸업	93	3.3924	.50539	
	④ 대학원 이상	8	3.6427	.40018	
	평균	-	3.3662	.52449	
허용・방임	① 중학교 졸업	5	3.4167	.29463	1.227 .302
	② 고등학교 졸업	54	3.5099	.43872	
	③ 대학교 졸업	93	3.4450	.48258	
	④ 대학원 이상	8	3.7500	.25588	
	평균	-	3.4813	.45693	

c.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

〈표 Ⅳ-6〉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태도에서는 거부・제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온정・수용, 허용・방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제재 태도는 전업주부인 어머니(t=3.25, p<.05)보다 취업을 한 어머니(t=3.41, p<.05)가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온정・수용, 허용・방임적 태도에서는 취업을 한 어머니들보다 전업주부인 어머니들이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6〉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태도

양육태도	취업유무	n	M	SD	t (p)
온정・수용	① 유	114	2.3305	.59958	1.071

	② 무	40	2.2222	.37146	.286
거부・제재	① 유	114	3.4175	.50936	-2.06*1 .041
	② 무	40	3.2526	.54987	
허용・방임	① 유	114	3.4489	.44370	1.004 .317
	② 무	40	3.6146	.41930	

*p<.05

B.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양육태도와의 차이

1.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의 차이

〈표 Ⅳ-7〉은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을 살펴본 결과이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을 살펴본 결과, 명령적 통제(t=-.578, p<.05), 지위적 통제(t=-0.20, p<.05), 인성적 통제(t=-.484, p<.05) 모두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7〉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언어통제유형	성별	n	M	SD	t (p)
명령적 통제	① 남	76	1.8142	.52345	-.578 .564
	② 여	81	1.8630	.53310	

지위적 통제	① 남	76	1.8549	.51841	-.020 .984
	② 여	81	1.8567	.58616	
인성적 통제	① 남	76	1.8387	.55099	-.484 .629
	② 여	81	1.8825	.58153	

2.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차이

〈표 Ⅳ-8〉 은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분석 결과이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는 온정·수용(t=.475, p<.05), 거부·제재(t=-.785, p<.05), 허용·방임(t=.244, p<.05) 모두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8〉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태도	성별	n	M	SD	t (p)
온정·수용	① 남	76	2.3301	.54471	.475 .635
	② 여	81	2.2882	.55910	
거부·제재	① 남	76	3.3266	.56627	-.785 .434
	② 여	81	3.3923	.48189	
허용·방임	① 남	76	3.4950	.49427	.244 .807
	② 여	81	3.4770	.42721	

C.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

〈표 Ⅳ-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요인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령적 통제는 온정·수용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명령적 통제와 온정·수용(r=.223, p<.01)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가 높아질수록 온정·수용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적 통제에서는 모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적 통제는 온정·수용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인성적 통제와 온정·수용(r=.227, p<.01)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성적 통제일수록 온정·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명령적 통제와 인성적 통제를 보일 때, 어머니의 온정·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 (n=160)

구분	상관계수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온정 수용	거부 제재	허용 방임
명령적 통제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						

	(양쪽)						
지위적 통제	Pearson 상관계수	.869(**)	1				
	유의확률 (양쪽)	.000					
인성적 통제	Pearson 상관계수	.888(**)	.883(**)	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온정 수용	Pearson 상관계수	.223(**)	.144	.227(**)	1		
	유의확률 (양쪽)	.004	.068	.004			
거부 제재	Pearson 상관계수	-.129	-.003	-.124	-.348(**)	1	
	유의확률 (양쪽)	.104	.970	.118	.000		
허용 방임	Pearson 상관계수	.081	.095	.081	-.216(**)	.346(**)	1
	유의확률 (양쪽)	.306	.232	.305	.006	.000	

** $p<.01$

D.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에서는 유능성, 지도력, 불안정성, 부모에 대한 애정, 방해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능성 (t=.352, $p<.05$), 지도력(t=1.813, $p<.05$), 불안정성(t=.249, $p<.05$), 부모에 대한 애정(t=.379, $p<.05$), 방해성(t=.795, $p<.05$) 모두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10〉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사회적 능력	성별	n	M	SD	t (p)
유능성	① 남	76	3.3575	.48782	.352 .725
	② 여	81	3.3298	.49520	
지도력	① 남	76	3.3797	.50443	1.813 .072
	② 여	81	3.2346	.49811	
불안정성 (소심/민감성불안)	① 남	76	2.8668	.50758	.249 .804
	② 여	81	2.8457	.55173	
부모에 대한 애정	① 남	76	3.6969	.69855	.379 .705
	② 여	81	3.6543	.70798	
방해성 (소극적/공격성)	① 남	76	2.7293	.59365	.795 .428
	② 여	81	2.6531	.60573	

E.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관계

〈표 Ⅳ-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요인, 어머니의 양육태도 요인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능성에서는 지위적 통제, 거부·제재, 허용·방임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정·수용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능성과 지위적 통제(r=.195, p<.05), 유능성과 거부·제재(r=.433, p<.01), 유능성과 허용·방임(r=.448, p<.01)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능성과 온정·수용(r=-.327, p<.01)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아의 유능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지위적 통제, 거부·제재, 허용·방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온정·수용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력에서는 지위적 통제, 거부·제재, 허용·방임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정·수용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지도력과 지위적 통제(r=.199, p<.05), 지도력과 거부·제재(r=.219, p<.01), 지도력과 허용·방임(r=.260, p<.01)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력과 온정·수용(r=-.311, p<.01)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아의 지도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지위적 통제, 거부·제재, 허용·방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온정·수용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소심·민감성 불안)에서는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온정·수용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부·제재와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불안정성과 명령적 통제(r=.350, p<.01), 불안정성과 지위적 통제(r=.284, p<.01), 불안정성과 인성적 통제(r=.256, p<.01), 불안정성과 온정·수용(r=.349, p<.01)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과 거부·제재(r=-.327, p<.01)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아의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온정·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거부·제재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애정에서는 거부·제재, 허용·방임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정·수용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애정과 거부·제재(r=.440, p<.01), 부모에 대한 애정과 허용·방임(r=.460, p<.01)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애정과 온정·수용(r=-.448, p<.01)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정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거부·제재, 허용·방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온정·수용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해성(소극적·공격성)에서는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온정·수용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부·제재, 허용·방임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방해성과 명령적 통제(r=.253,<.01), 방해성과 지위적 통제(r=.291,<.01), 방해성과 인성적 통제(r=.313,<.01), 방해성과 온정·수용(r=.371,<.01)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해성과 거부·제재(r=-.414,<.01), 방해성과 허용·방임(r=-.169,<.05)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아의 방해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온정·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거부·제재, 허용·방임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관계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유능성	지도력	불안정성	부모에 대한 애정	방해성(소극적/공격성)
명령적 통제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양쪽)											
지위적 통제	Pearson 상관계수	.869(**)	1									
	유의확률(양쪽)	.000										
인성적 통제	Pearson 상관계수	.888(**)	.883(**)	1								
	유의확률(양쪽)	.000	.000									
온정·수용	Pearson 상관계수	.223(**)	.144	.227(**)	1							
	유의확률(양쪽)	.004	.068	.004								
거부·제재	Pearson 상관계수	-.129	-.003	-.124	-.348(**)	1						
	유의확률(양쪽)	.104	.970	.118	.000							
허용·방임	Pearson 상관계수	.081	.095	.081	-.216(**)	.346(**)	1					
	유의확률(양쪽)	.306	.232	.305	.006	.000						
유능성	Pearson 상관계수	.103	.195(*)	.121	-.327(**)	.433(**)	.448(**)	1				
	유의확률(양쪽)	.193	.013	.126	.000	.000	.000					
지도력	Pearson 상관계수	.086	.199(*)	.137	-.311(**)	.219(**)	.260(**)	.637(**)	1			
	유의확률(양쪽)	.280	.011	.084	.000	.005	.001	.000				

불안정성 (소심/민감성불안)	Pearson 상관계수	.350(**)	.284(**)	.256(**)	.349(**)	-.327(**)	-.148	-.120	-.054	1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1	.000	.000	.061	.131	.496			
부모에 대한 애정	Pearson 상관계수	.032	.101	.036	-.448(**)	.440(**)	.460(**)	.567(**)	.581(**)	-.090	1	
	유의확률(양쪽)	.686	.204	.654	.000	.000	.000	.000	.000	.257		
방해성 (소극적/공격성)	Pearson 상관계수	.253(**)	.291(**)	.313(**)	.371(**)	-.414(**)	-.169(*)	-.159(*)	.079	.580(**)	-.193(*)	1
	유의확률(양쪽)	.001	.000	.000	.000	.000	.032	.043	.320	.000	.014	

* $p<.05$, ** $p<.01$

V. 결론 및 제언

A. 결 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은 명령적 통제에서는 30세 이하 어머니가 높게 나타났고, 41세 이상 어머니가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Shure와 Spivick(1978)가 제시한 어머니의 언어가 제한적이고 명령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경우 유아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나 부정적인 협상, 권위자에게 의존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적 통제에서는 30세 이하 어머니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41세 이상 어머니가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인성적 통제에서는 30세 이하 어머니는 높게 나타났고, 41세 이상 어머니는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모든 언어통제 유형에서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세 이하의 어머니가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모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과 취업유무에 따른 언어통제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언어통제유형으로서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모두, 통계적으로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언어통제 유형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어머니보다 고졸 학력의 어머니가 더 명령지향적 통제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김영주(1999)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언어통제 유형에서는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모두 통계적으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언어통제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학력과 취업유무는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유아간의 대화정도와 수준에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한 김진이(1996)의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온정·수용, 허용·방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거부·제재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수용 에서는 30세 이하 어머니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41세 이상 어머니가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거부·제재 에서는 36-40세 어머니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41세 이상 어머니가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허용·방임 에서는 36-40세의 어머니가 높게 나타났고, 41세 이상 어머니는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온정·수용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낮아졌고, 어머니의 허용·방임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과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태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학력과 취업유무는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서는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을 살펴본 결과,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모두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경희(1993)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반면에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도혜숙(1999)의 연구와는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는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결과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는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모두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Arlene(1982)이 제시한 것처럼 어머니의 연령이 가장 시기적절할 때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게 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에게 의존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이원영, 1983). 반면 양육태도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공인숙, 1989; 오성심·이종승, 1982; 이수연, 1985; 조희진, 1982; Becker, 1964)와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명령적 통제일 때, 온정·수용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명령적 통제와 온정·수용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가 높아질수록 온정·수용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정·수용이 정적인 상

관을 보여,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온정·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적 통제일 때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모두 지위적 통제와 상관을 보이지 않으므로, 어머니의 지위적 통제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적 통제에서는 온정·수용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성적 통제와 온정·수용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성적 통제일수록 온정·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인성적 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온정·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명령적 통제와 인성적 통제를 보일 때, 어머니의 온정·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양육태도는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통제유형을 사용할 때 긍정적인 발달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태도를 깊이 생각하고 유아에게 사용하는 언어를 신중히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서는 유아의 성별과 유능성, 지도력, 불안정성(소심·민감성 불안), 부모에 대한 애정, 방해성(소극적·공격성) 모두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유아의 유능성과 어머니의 지위적 통제, 거부·제재, 허용·방임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정·수용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능성과 지위적 통제, 유능성과 거부·제재, 유능성과 허용·방임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능성과 온정·수용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아의 유능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지위적 통제, 거부·제재, 허용·방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온정·수용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지도력에서는 지위적 통제, 거부·제재, 허용·방임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정·수용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지도력과 지위적 통제, 지도력과 거부·제재, 지도력과 허용·방임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력과 온정·수용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아의 지도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지위적 통제, 거부·제재, 허용·방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온정·수용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불안정성(소심·민감성 불안)에서는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온정·수용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부·제재와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유아의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온정·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거부·제재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불안정성과 명령적 통제, 불안정성과 지위적 통제, 불안정성과 인성적 통제, 불안정성과 온정·수용간의 유의한 정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정성과 거부·제재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아의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온정·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거부·제재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정에서는 거부·제재, 허용·방임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정·수용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정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거부·제재, 허용·방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온정·수용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방해성(소극적·공격성)에서는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온정·수용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부·제재, 허용·방임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유아의 방해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온정·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거부·제재, 허용·방임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애정에서는 거부·제재, 허용·방임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정·수용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애정과 거부·제재, 부모에 대한 애정과 허용·방임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애정과 온정·수용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정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거부·제재, 허용·방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온정·수용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해성(소극적·공격성)에서는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온

정·수용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부·제재, 허용·방임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방해성과 명령적 통제, 방해성과 지위적 통제, 방해성과 인성적 통제, 방해성과 온정·수용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해성과 거부·제재, 방해성과 허용·방임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아의 방해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온정·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거부·제재, 허용·방임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한 유아의 일생에 가장 튼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언어 환경과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상호관련 되었음을 밝히고 바람직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시사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B. 제 언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전제로 해석되고 일반화되어야 하며, 앞으로 후속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제한점을 개선 또는 극복하여 좀 더 심도 있게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여러 가지 제한 상,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양육태도,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만을 분석하였는데, 앞으로는 다른 변인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가치관, 결혼 만족도 등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및 양육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분석도 이

루어진다면 언어통제 유형과 양육태도에 관한 보다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측정도구 사용의 문제로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검사지를 사용하여 일상적 언어들을 제한된 문자로 표현해서 어머니의 언어 통제유형을 측정하였는데 미흡한 점이 있고, 실제 상황에서의 관찰이 아닌 검사지로 이루어진 자기 보고식 검사이므로 보고자의 편견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방법 외에 관찰법, 자녀들의 응답 등 객관적인 자료수집에 의한 다양한 방법과 함께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어머니의 언어적 환경 변인과 상호작용을 근접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어머니용 평정 척도를 사용했으므로 전번적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는 있어서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결여된 주관적인 평가개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교사나 아버지 평정 모두를 고려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측정방법을 사용해서 더욱 신뢰성 있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를 어머니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의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는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재하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양육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본다. 성인인 아버지나 대리양육자의 양육태도도 함께 투입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늘어 현대의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이혼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편부 혹은 편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지역을 골고루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몇 군데의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소수의 보육·유아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타 지역의 많은 아동들에게 일반화 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보다 더 다양한 지역에서 자료를 수집한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 결과와 결론들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를 파악하고,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비교분석하여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태도, 언어유형과 유아의 발달 특성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유아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보다 바람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방향성을 제시를 함께 연구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현대사회의 아동발달에 중요한 키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고후순(1985). 유아교육학 개론 서울 : 학문사.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 용(198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옥자(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동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기보경(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숙자(1989). 부모참여교육론 서울 : 교육과학사.

김순자(1982). 어머니의 간섭이 자녀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주(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옥민(1985).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미치는 여러 변인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영(1997). 부모의양육태도와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모자간 애착, 유아기질 및 어머니 양육행동간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혜(2001). 어머니의 자아개념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숙(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감성지수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혜숙(1997).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마송희(1991). 아동의 사회적 수용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성희(1982).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개념화 유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1992),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 학회지, 27(4), p152.**
박성혜(199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인덕(1970), 여교사 자녀의 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가정학 연구, 제3집,**
박정선(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숙도 및 인기도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혜련(1996),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모자간 애착, 유아 기질 및 어머니 양육행동간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인우(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춘자(199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명신(1987).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공격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경아(2000). 양육자의 태도와 언어통제 유형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성심 ·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 노트". 제11(1), 1-15,
오화심(1994).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 사고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인철(1996).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운현선(1983). 母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수남(1980). 어머니의 직업유무 및 가정환경과 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안진(1982). 육아론 서울 : 문음사.
유영주(1971). 母의 직업 유무 및 양육태도와 아동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19(2),**

이 숙(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아동학회지, 9(2), 61-91.**

이경희(199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희(1995). 어성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경(2007).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병림(1990).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논문집,

이상로(1979). 성격과 행동의 지도. 서울 : 중앙적성연구소 .

이선희(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연(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옥(2003).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태도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화(1998).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및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화(1998).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및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완정(199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방식과 아동의 창조적 의사소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용숙(1988). 어머니의 취업과 학교 교육 및 자녀의 성취에 관한 연구..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계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미영(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언어통제유형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은정(2002). 늦둥이 유아의 문제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원식(1984). 아버지 방법, 어머니 기술. 서울 : 집현전.

조희진(198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희진(198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언어통제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명숙(198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능력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경숙(1997).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언어통제 유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추영란(1980).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가정환경에 대한 인지.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혜종(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rlene, S. R., Robert, B. B., Keith, A. C., Mark, T. G., and Nancy. M. R.(1982), Effects of maternal age on parenting role, *Developmental Psychology, 18*(4), 627-634.
Baldwin, A. L. 1949. The effect of home environment on nursery school behavior, *Child Development,* 20, 48-61.
Baruch, G. K., & Barnett, R. C. (1981). Competence-related behaviors of preschool girls. *Genetic Psychologe Mondgraphs, 103,* 79-103.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Pick(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7, pp.3-46).
Baumrind, D.(1972),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1* (1), pp.303-306.
Baumrind, D., & Black, A. E. (1967). Socialization practices associated with dimensions of competence in preschool boys and girls. *Child Development, 38,* 291-327.
Becker, W. C.(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discipline. In M. Hoffman. & L. 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ement(vol. I, pp. 169-208) *NT* : Russrll Sage.
Bernstein B. A. (1972), A Sociolingustics approach to Socialization ; with some reference to educaility, In J. J. Gumperz & D. Hymes(Eds). Directions in

society, New York : Free Press.

Bernstein B.(1961), Social class and linguisic development : A theory of social learning, In A. H. Halsey, J. Floud & G. A. Anderson(Eds.), Education,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 Free Press.

Bernstein, B. A. (1971). Class, codes and control (VOLI) ; Theoretical Studies towards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

Bloom. B.(1964)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Bronson, W. C. (1974). Competence and the growth of personality. In K. Connoly & J. Baur (Eds.), The ctrowth of competence (pp.241-264). New York : Academic Press.

Bryan, J. H, & Walb다, N. H. (1970). Preaching and praticing generosity : Children's action and reactions. *Child Development, 41,* 329-353.

Ford, M. E. (1981). Validity of social skills measures for assessing social competence in low-status children : A multivariate inverstigation.

Freud, S. (1953), A General introduction to psychoanalysis, New York : Permabooks, A Division of Doubleday & Company, Inc.

Green, K. D., Forehard, R., Beck, S. J., & Vol, B(1980). An 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among measures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nt.

Gumperz J. J.(1973)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pp. 485-488). London : Holt, Rinehart & Winston.

Gumperz, J. C. (1973). Social control and socialization, London & Boston : Kagan Paul.

Hess, R. D., & Shipman, V. C.(1965), Early experience and the socialization of cognization modes in children. *Child Developmemt,* 36(4), 869-886.

Kohn, M., & Rosman, B. L. (1972). A social competence scale and symptom checklist for the preschool child : Factor dimensions, their cross-instrument generality and longitudinal persistence. *Pevelopmental Psychology, 6*(3), 7 430-444.

Krasner, L. R., & Rubin, K. H. (1983). Prescbool Social problem solving : Attempts and outcome in naturalistic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4,* 1545-1558.

MacDonald, K.(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Olim, E. G. (1970). Maternal Language styles and cognitive development of children. In F. Williams(ed). Language and Poverty : Perspectives on a theme (pp. 212-228). Chicago : Makkham Publisging Company.

P. M, Symonds,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Home Economics Research Jounal, (N. Y. :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49, pp. 84-88,; 한진연, 2002 재인용).

Pease, D., Clark, G., & Crase, S. J.(1979). Iowa Social Competence Scale : School-age & Preschool Manual. Iowa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NJ : Prentice Hall.

Rohner, R. P. (1991), The warmth dimension : Foundation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theory, New York : Sage Publication.

Rohner, R. P., Rolls, S., & Rohner, E. C. (1980),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ersonality organization among mex-can and American elimentary school children Behavior Science Research, 1.

Saavedra, J. M.(1980).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warmth and control on the self-evaluation of puertorican adolecent males. Behavior Science Research, Vol. 15, 41-54.

Schae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59, pp.226-235.

Schaefer, E. S.(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4-424.

Schaefer, R. (1977). Mothering. Harvard university, Boston.

Sears, R. R.(1965), The learning theory of child development, New York : Harper and Row.

Sears, R., E. Maccoby, & H. Levin(1957), Pattern of child Rearing, New York : Harper & Row.

Shaffer, D. R. (1994),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CA : Brooke/Cole.

Shure, M. B. & Spivack, G. (1978), Problem-solvint technique in child-rearing, NJ : Jossey-Boss.

Shure, M. B., & Spivack, G.(1984). Social adjustment of young child rearing. San

Francisco : Jossey-Bass.

Thorlindsson, T. (1981). A Guest for mind : A Study of family interaction, role taking ability and use of elaborated language, in an icelandic setting.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Turner, P. H, & Harris, M. B. (1984). Parental Attitudes and preschoo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4,* 105-113.

Vygotsky, L. S.(1962), Thought and language. Eugenia Hanfmann and Gertrude.

Weinstein, E. A. (1969).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D. A. Golsin(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IL : Rand McNally.

White, B. L., Kaban, B., & Attanucci, J. S. (1979). The origins of human competence. Lexington, MS : Lexington Books.

White, R. W.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97-333.

Zigler, E., & Trikett, P. K. (1978). I. Q., Social competence and evaluation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rograms. *American psychologist, 33,* 778-798.

부 록

〈 부록Ⅰ 〉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관한 질문지 ····· 89
〈 부록Ⅱ 〉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질문지 ····· 97
〈 부록Ⅲ 〉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어머니용) ····· 101

<부록>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

본 설문은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위한 것으로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유아와 어머니와의 언어적 활동과 양육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설문 내용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응답해 주신 설문서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오며, 학문적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작성하셔서
원아를 통해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자녀 중 이 설문서를 가져가는 자녀에게 평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응답은 연구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끝까지 성심 성의껏 응답해 주셔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응답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7월 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전공
지도교수 : 박 주 성
연 구 자 : 나 현 미
(☎ : 061-381-2595, H·P : 010-9750-1223)

<부록 I>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관한 질문지

♥ 다음의 문항은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나 혹은 "만약에 그랬다면…"하는 가정하에서의 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질문에 대해서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번호마다 다음의 예시와 같이 빠짐없이 표시해 주십시오. (만약 문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란에 써 주세요)

[예 시]

(보기)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0에	⓪	1	2	3	4
매우 드물게 사용하는 편일 때	1에	0	①	2	3	4
가끔 사용하는 편일 때는	2에	0	1	②	3	4
자주 사용하는 편일 때는	3에	0	1	2	③	4
항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4에	0	1	2	3	④
기타 (벌을 세운다, 손바닥을 맞는다, 소리를 지른다, 엄한 표정을 짓는다. 등)						

[예 시]

번호	질 문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1	아침에 유치원(어린이집)에 갈 시간인데, 아이가 시간을 끌며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때 어머니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					
	(1) 네가 결석하면 선생님이 무척 걱정 하실텐데	⓪	1	2	3	4
	(2) 아무 이유없이 결석하는 것은 나쁜 일이야	0	①	2	3	4
	(3) 유치원(어린이집)에 왜 안가? 꾀부리지 말고 어서 가	0	1	2	③	4
	(4) 기타 : 소리를 지른다.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관한 질문지

♥ 각 문항의 질문은 어머니 자신과 자녀에 관련된 질문이오니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해당란에 √ 표나 ○ 표로 답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번호	질 문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1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뛰어와서 신발을 현관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지듯이 놓고 들어옵니다. 이 때 어머니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					
	(1) 자기 신발을 바로 해 놓을 수 있어야지.	0	1	2	3	4
	(2) 신발이 그게 뭐니. 똑바로 해놓고 와.	0	1	2	3	4
	(3) 네가 신발을 똑바로 해 놓으면 엄마가 정리를 안해도 되잖니!	0	1	2	3	4
	(4) 기타 :					
2	밖에서 욕을 배워 와서 욕을 한다면 어머니는 무어라고 말씀하십니까 ?					
	(1) 어디서 그런 나쁜 욕을 배웠어 다시 그런 욕을 하면 혼내줄꺼야!	0	1	2	3	4
	(2) 욕은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야.	0	1	2	3	4
	(3) 네가 욕하고 다니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엄마 흉보겠다.	0	1	2	3	4
	(4) 기타 :					
3	이유도 없이 어린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어서 꾀를 부린다면 어떻게 말씀 하시겠습니까 ?					
	(1) 네가 결석하면 선생님이 무척 걱정 하실텐데.	0	1	2	3	4
	(2) 아무 이유없이 결석하는 것은 나쁜 일이야.	0	1	2	3	4
	(3) 유치원(어린이집)에 왜 안가? 꾀부리지 말고 어서 가	0	1	2	3	4
	(4) 기타 :					
4	집에 손님이 오셨을 때 손님 앞에서 버릇없이 행동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					
	(1) 너 이제 혼날 줄 알아	0	1	2	3	4
	(2) 너 왜 손님 앞에서 철없이 그러니? 의젓해야지	0	1	2	3	4
	(3) 그렇게 버릇없이 굴면 손님이 흉보겠다	0	1	2	3	4
	(4) 기타 :					

번호	질 문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5	어린이가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손을 씻지 않고 밥상에 앉는다면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1) 아휴! 저 더러운 손. 빨리 씻고 와	0	1	2	3	4
	(2) 손이 더러우면 네 손에 있는 더러운 병균도 같이 먹게 되잖니?	0	1	2	3	4
	(3)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지.	0	1	2	3	4
	(4) 기타 :					
6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이가 “하기 싫어”라고 대답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1) 엄마가 말하는데 싫어가 뭐야. 엄마가 하라면 해야지	0	1	2	3	4
	(2) 잔소리 말고 빨리 갖다와. 안가면 혼낼꺼야.	0	1	2	3	4
	(3) 싫더라도. 엄마가 바빠서 그러니 도와주면 좋겠구나.	0	1	2	3	4
	(4) 기타 :					
7	어린이와 함께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이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1) 인사를 잘 해야 착한 사람이지	0	1	2	3	4
	(2) 인사할 줄도 몰라? 어서 인사 해!	0	1	2	3	4
	(3) 네가 인사를 드리지 않아서 서운해 하시겠다.	0	1	2	3	4
	(4) 기타 :					
8	어머니께서 어린이를 데리고 쇼핑을 갔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아이의 주머니속에 사주지 않은 장남감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때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1) 네가 몰래 그러다니 엄마는 너무 속상해!	0	1	2	3	4
	(2)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샀어야지!	0	1	2	3	4
	(3) 도둑놈 되고 싶어 그래? 다음에 또 그러면 혼날 줄 알아!	0	1	2	3	4
	(4) 기타 :					

번호	질 문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9	어린이가 밥을 먹다가 국그릇을 엎질러 상이 온통 국으로 덮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					
	(1) 식사할 때는 조심해서 먹어야지!	0	1	2	3	4
	(2) 또 쏟았어? 너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서 어쩔래 ?	0	1	2	3	4
	(3) 다치진 않았니? 괜찮니?	0	1	2	3	4
	(4) 기타 :					
10	어머니께서 급히 외출할 일이 있어 나가려 하는데 아이가 울면서 같이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1) 얘가 왜 이래? 빨리 나가서 놀지 못해!	0	1	2	3	4
	(2) 너 혼자서도 잘 놀아야지 착한 아이지	0	1	2	3	4
	(3)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다보면 덜 심심하잖아!	0	1	2	3	4
	(4) 기타 :					
11	자녀가 지꾸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머니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1) 너 왜 자꾸 거짓말을 하니? 다시는 하지마.	0	1	2	3	4
	(2) 만약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한다면 너도 기분이 좋겠니?	0	1	2	3	4
	(3) 거짓말은 하는 것은 나쁜 짓이야.	0	1	2	3	4
	(4) 기타 :					
12	어린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방안을 온통 어지러 놓은 채 그냥 두고 나갈 때 ?					
	(1) 네가 방을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엄마가 힘들어.	0	1	2	3	4
	(2)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으면 잘 치어야지.	0	1	2	3	4
	(3) 방이 이게 뭐니? 빨리 치워	0	1	2	3	4
	(4) 기타 :					

번호	질 문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13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자야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린이가 계속 텔레비전을 더 보겠다고 조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					
	(1)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0	1	2	3	4
	(2) 어서 가서 자거라(TV를 끈다)	0	1	2	3	4
	(3) 늦게 자면 내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유치원 (어린이집)에 늦잖니 ?	0	1	2	3	4
	(4) 기타 :					
14	어린이가 집에서 형제(동생, 누나, 형)와 다투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셨다면,					
	(1) 얘들이 왜 이래. 그만 두지 못해!	0	1	2	3	4
	(2) 너희들이 싸우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해. 싸우니까 너도 속상하지?	0	1	2	3	4
	(3) 형제끼리는 서로 의좋게 지내야지.	0	1	2	3	4
	(4) 기타 :					
15	아이가 친구 집에 다녀와서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또는 신발, 옷 등)을 부러워하며 사달라고 조른다면 이 때 아이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1)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	0	1	2	3	4
	(2) 네가 자꾸 이러면 엄마 속상해.	0	1	2	3	4
	(3) 그만 졸라! 계속 그러면 혼난다.	0	1	2	3	4
	(4) 기타 :					
16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가 다른 아이에게 맞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 온다면 ?					
	(1) 너는 바보같이 맞고만 다니니? 다시는 맞고 오지마!	0	1	2	3	4
	(2)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야지. 싸우는 건 나빠!	0	1	2	3	4
	(3) 많이 아프겠구나. 어서 씻고 약 바르자.	0	1	2	3	4
	(4) 기타 :					

번호	질 문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17	만약 어린이가 밖에서 들어오는 길에 꽃을 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꺾은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어머니는 어떻게 말씀 하시겠습니까 ?					
	(1) 누가 꽃을 꺾으랬어. 다음부터는 꺽지 마.					
	(2) 네가 꺾지 않았더라면 꽃도 안 아프고 다른 사람들도 예쁜 꽃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을 텐데.					
	(3) 길가에 심어져 있는 꽃이나 나무는 꺾는게 아냐.					
	(4) 기타 :					
18	아이가 유치원(어린이집)에 혼자 처음 가는 날 안가겠다고 떼를 쓴다면 ?					
	(1) 네가 혼자 다녀온다면 엄마는 이제 다 커서 혼자서도 유치원(유아원)에 잘 다녀오는 네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2) 너는 왜 바보처럼 혼자 유치원(유아원)에도 못가니?					
	(3) 씩씩한 어린이는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어야지.					
	(4) 기타 :					
19	아버지께서 어린이와 무슨 약속(선물을 사준다거나, 어디에 데려간다든지.) 하시고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아이가 화를 내며 말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1)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니? 혼나고 싶어?					
	(2) 아빠께 그러면 되겠니? 그러지 말고 아빠께 말씀 드려!					
	(3) 아빠가 바짜서 깜빡 잊으신 모양이다. 같이 가서 말씀드려 보자.					
	(4) 기타 :					
20	어머니께서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으신데 어린이가 친구들을 데려와서는 시끄럽게 떠들면서 놉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하셨는데도 집에서 계속 떠들며 논다면 ?					
	(1) 엄마가 하는 이야기 안 들리니 ? 엄마가 말하면 들어야지					
	(2) 계속 그러면 친구 데리고 못 오게 할꺼야.					
	(3) 엄마가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시끄러워서 쉴 수가 없잖아.					
	(4) 기타 :					

번호	질 문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21	저녁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어린이는 밥 먹는 데는 관심이 없고 게임기나 장난감 등 자신이 재미있어 하는 놀이만 계속하고 어머니께서 부르시지만 말을 안 듣는다면 ?					
	(1) 어서 와서 밥 먹어 !(장난감을 뺏는다)					
	(2) 네가 빨리 안 오면 식구들이 기다리잖아!					
	(3) 아무리 재미있어도 식사시간엔 밥을 먹어야지.					
	(4) 기타 :					
22	어머니께서 글자나 숫자 등을 어린이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하기 싫다면서 다른 놀잇감만 가지고 놀려고 한다면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					
	(1) 애가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 잘보고 써라.					
	(2) 엄마가 가르쳐 주면 열심히 배워야지.					
	(3) 이것을 알아야 동화책도 읽고 숫자도 셀 수 있어서 다른 것도 알 수 있지.					
	(4) 기타 :					
23	만약 어린이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안 지켜서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고 한다면.					
	(1)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2) 네가 약속을 못 지켜서 선생님 마음이 상하셨겠다.					
	(3) 왜 약속을 못 지켰어? 다시 또 그러면 엄마한테도 혼난다.					
	(4) 기타 :					
24	아침에 어린이가 자신이 입고 싶은 옷만 입고 유치원(유아원)에 가려고 고집을 부린다면 ?					
	(1) 엄마가 보기에는 다른 옷도 너에게 참 어울린다고 생각되는데					
	(2) 어떤 옷이든지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면 되는 거야					
	(3) 이 옷이 어때서 그래. 어서 입어.					
	(4) 기타 :					

25	어린이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나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 놓았을 때 어머니는 무어라고 말씀 하십니까 ?					
	(1) 넌 손이 없니? 빨리 치워.					
	(2) 옷을 제대로 벗어서 잘 걸어 놓아야지.					
	(3) 네가 잘 벗어서 걸어 놓으면 엄마가 힘들지 안잖아.					
	(4) 기타 :					

<부록Ⅱ>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질문지

♥ 각 문항의 질문은 어머니 자신과 자녀에 관련된 질문이오니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해당란에 √ 표나 ○ 표로 답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번호	문 항	매우 비슷하다	대체로 비슷하다	보통 이다	별로 비슷하지 않다	전혀 비슷하지 않다
1	의견이 서로 다를 때는 그 애의 생각을 먼저 들어본다.					
2	자녀가 뭘 하든 존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3	자녀가 하고 싶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하게 해준다.					
4	자녀가 집에 들아오면 밖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함께 애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5	너 같은 애를 둔 것이 창피하다는 말을 한다.					
6	자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				
7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는 너 때문에 속이 상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8	자녀가 원하는 것은 가능 하면 들어 주려고 노력한다.					
9	자녀가 기관에서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오면 그것 때문에 집에서 또 혼을 낸다.					
10	자녀가 간혹 잘못한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11	자녀가 실수를 하면 다음에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준다.					
12	내 자식이지만 자녀가 정말 미울 때가 있다.					
13	자녀와 함께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14	자녀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낼 때가 많다.					
15	자녀가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해 두고서 반드시 지키게 한다.					

번호	문 항	매우 비슷하다	대체로 비슷하다	보통 이다	별로 비슷하지 않다	전혀 비슷하지 않다
16	내가 시키는 일을 즉시 하지 않으면 화를 내게 된다.					
17	자녀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자주 해 준다.					
18	어떤 것이든 자녀가 싫다고 하면 그만 두라고 한다.					
19	자녀가 공부나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어하면 할 수 있는데 까지라도 혼자서 해보라고 말해준다.					
20	자녀가 집에서 어지르거나 시끄럽게 하고 다니면 짜증스러워서 야단을 친다.					
21	자녀를 키울 때의 재미난 추억들을 이야기해준다.					
22	자녀가 실수를 하면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나 싶어 핀잔을 주게 된다.					
23	될 수 있으면 자녀의 감정을 건드리기 싫어서 내버려둔다.					
24	예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준다.					
25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엄마가 하라면 해'라는 식으로 명령을 해서라도 말을 듣게 한다.					
26	자녀에게 '수고했다' 또는 '고맙다'라는 말을 한다.					
27	자녀에 대한 나의 불만을 자주 나타내는 편이다.					
28	자녀에게 착하다거나 기특 하다라는 말을 자주한다.					
29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 버릴 때가 많다.					
30	자녀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제나 잘 알고 있다.					
31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까 봐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해서 하게 한다.					
32	자녀가 기뻐할 일들을 생각했다가 그렇게 해 주곤 한다.					
33	다른 사람이 하면 괜찮은 일도 그 애가 하면 야단을 하게 된다.					
34	자녀와 함께 읽거나 본 것들에 대해 같이 이야기 하는 것을 즐긴다.					
35	자녀가 억울하다고 불평이나 항의를 하려고 하면 일단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36	자녀가 말을 할 대는 끝까지 들어준다.					
37	너 때문에 내가 힘이 든다는 말을 자녀에게 한다.					

번호	문 항	매우 비슷하다	대체로 비슷하다	보통 이다	별로 비슷하지 않다	전혀 비슷하지 않다
38	하면 안 되는 일도 자녀가 조르면 그냥 하게 놔둔다.					
39	자녀가 밖에서 들어올 때 반갑게 맞아 주려고 노력한다.					
40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면 혹시라도 잘못 될까봐 자세하게 이것저것 충고를 한다.					
41	자녀가 한일이 대견스러워 칭찬을 해 주는 대가 많다.					
42	나는 아이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곤 한다.					
43	여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44	자녀를 보면 답답해서 바보 같다는 말을 자주하게 된다.					
45	자녀가 궁금해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한다.					
46	자녀가 무슨 말을 하면 보통 건성으로 대꾸 할 때가 많다.					
47	어떤 규칙이라도 꼭 지키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48	자녀의 기분을 잘 이해해주는 편이다.					
49	자녀를 부당하게 또는 지나치게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다.					
50	자녀가 아직 나의 도움이 필요할거라고 생각되어 가능한 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준다.					
51	자녀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는 내 의견과 충고를 따르도록 한다.					
52	가능한 한 모든 일을 집에서 하게한다.					
53	자녀의 말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믿게 될 때가 많다.					
54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자녀가 직접 불편을 겪어보고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55	기분이 언짢을 때는 조그마한 일로도 화가 나서 야단을 치게 된다.					
56	자녀가 자신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 주려고 노력한다.					
57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커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러느냐는 말을 자주한다.					
58	늘 웃는 얼굴로 자녀를 대해준다.					
59	자녀가 조르는 것은 대체로 다 사준다.					
60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나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준다.					

번호	문 항	매우 비슷하다	대체로 비슷하다	보통 이다	별로 비슷하지 않다	전혀 비슷하지 않다
61	자녀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상해서 어머니 애쓰는 것도 몰라준다고 불평을 한다.					
62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혼자서 해보도록 권한다.					
63	자녀가 잘하는 것은 모르겠고 잘못하는 것만 금방 눈에 띄어 야단을 칠때가 많다.					
64	가족이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들어본다.					
65	말을 안 들으면 결국 때려준다.					
66	자녀가 도움을 꼭 필요로 할 때는 기꺼이 도와준다.					
67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자녀가 잘못을 해도 야단을 치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					
68	가능한 한 자녀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주려고 노력한다.					
69	자녀 때문에 속이 너무 상하면 보기도 싫다고 말하게 된다.					
70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71	나는 우리 아이에게 원해서 가진 아이가 아니었음을 알게 한다.					
72	나는 우리 아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73	자녀가 잘못했던 것들을 두고두고 몇 번씩 말할 때가					
74	자녀가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다.					
75	어른과 다른 의견을 주장하려하면 버릇이 없다고 야단을 쳐준다.					
76	자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이야기 해준다.					
77	자녀가 할 것을 안 하고 딴 짓을 하고 있어도 야단을 치기가 어렵다.					
78	자녀가 아플 때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준다.					
79	하려고 했던 일도 자녀가 싫다고 하면 끝까지 시키지 않는다.					
80	자녀가 걱정되는 일이 있어 말을 하면 함께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부록Ⅲ>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어머니용)

각 문항의 질문은 어머니께서 평소에 자녀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보아오신 자녀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시는 문항에 √ 표나 ◯ 표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번호	문 항	매우 비슷하다	대체로 비슷하다	보통 이다	별로 비슷하지 않다	전혀 비슷하지 않다
1	다른 아이(또는 형제)가 칭찬을 받으면 심술을 낸다.					
2	낯선 곳에 가면 몹시 불안해한다.					
3	나에게 뽀뽀를 하거나 안기는 등 신체적 애정표현을 자주한다.					
4	다른 아이(또는 형제)와 놀이를 하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					
5	뭐든지 잘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6	다른 아이들과 놀 때 자주 대장노릇을 한다.					
7	다른 아이(또는 형제)가 자기 방식대로 잘 따르지 않으면 하던 놀이를 그만 둔다.					
8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주도하면 다른 아이들이 따라한다.					
9	다른 아이(또는 형제)에게 욕하거나 약 올리기를 좋아한다.					
10	다른 아이(또는 형제)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11	다른 아이(또는 형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					
12	나의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예 : 나를 껴안거나 만지려하고 기대려고 한다.)					
13	다른 아이(또는 형제)들과 어울려 놀 때 우리 아이가 활동을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번호	문 항	매우 비슷하다	대체로 비슷하다	보통 이다	별로 비슷하지 않다	전혀 비슷하지 않다
14	아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15	어른이 지시를 하면 잘 알아듣고 그대로 행동한다.					
16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금방 울거나 당황해 한다.					
17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또는 형제)들이 이야기하면 기분 상해한다. (예 : 울어버리거나 속상해 한다.)					
18	힘에 벅찬 일이라도 어른이나 다른 아이(또는 형제)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해결한다.					
19	다른 사람(또는 형제)들이 이야기할 때 말참견을 한다.					
20	자주 깜짝 놀라거나 당황해 한다.					
21	일을 시키면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					
22	나에게 애정표시를 한다.					
23	내 기분이 나빠 보이면 즉시 내게 다가와서 말을 건다.					
24	다른 아이(또는 형제)들이 놀 때 방해를 한다.					
25	우리 아이가 제안을 하면 다른 아이(또는 형제)들이 따라 한다.					
26	누군가가(특히 가족 이외의 사람)자신의 행동을 흠잡거나 바로 잡아 주려고 하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예 : 화를 내거나, 토라지거나, 시무룩해진다.)					
27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나 놀이를 먼저 제안한다.					
28	아이들(또는 형제)과 놀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29	자신에게 다소 무리가 되는 일들도 끝까지 해 본다.					
30	다른 아이(또는 형제)들과 놀 때 자기 주관대로 행동을 한다.					

번호	문 항	매우 비슷하다	대체로 비슷하다	보통 이다	별로 비슷하지 않다	전혀 비슷하지 않다
31	다른 아이(또는 형제)에게 게임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32	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33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아이와는 놀지 않는다.					
34	바람직한 행동으로 칭찬을 자주 듣는다.					
35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꼭 나에게 주려고 한다.					

♧------귀하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어머니와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내용입니다.

기재사항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오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1. 어머니의 연령 : (　　세)
2. 어머니의 교육정도 :
   ① 중학교 졸업(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대학교 졸업(　　)　④ 대학원 이상(　　)
3. 어머니의 취업유무 :　유(　　),　무(　　)
4. 어머니의 종교유무 :　유(　　),　무(　　)
5. 가정의 한달 평균 수입(년 소득을 평균으로 한 것)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 이상(　　)

[자녀]

구 분	성 별	만 나이
자녀 1		
자녀 2		
자녀 3		
자녀 4		